

19세기 후기 국어방언에서 진행 중인 음성변화와 과도교정(hypercorrection)의 개입에 대한 일 고찰

최전승(전북대)

1. 서론

1.1.

이 글에서 글쓴이는 19세기 후기 지역방언 자료에 반영된 진행 중인 음성변화 가운데 일반적인 규칙 또는 지역 고유한 특질을 보이는 변화의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과도교정(hypercorrection)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유형들을 정리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여기서 취급하게 될 대상은 19세기 후기의 중부방언과 전라방언에 국한시키려고 한다.¹⁾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글쓴이는 언어변화와 여기에 능

1) 이 글은 제46회 국어문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2009. 1. 30)에서 발표한 초고를 수정한 것이다. 서형국 선생(고려대)의 지정토론과 자료 보충에 감사 한다. 또한, 고동호 교수(전북대)와 강희숙 교수(조선대)의 자료 검토와 자세한 비평에 감사를 드린다. 다시 수정한 원고를 가설 설정과 자료 해석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준 정재경 선생(고려대 대학원)과 이정애 교수

동적으로 참여하는 화자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사실을 이끌어 내고 이것의 의미를 음미하려고 한다.²⁾

첫째, 당시의 19세기 후기 지역방언 화자들은 중부방언과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서 권위 방언 또는 규범어의 사회언어학적 가치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중부와 남부지역의 화자들은 규범적인 표준어와 지역 토착어 간의 음운 대응 의식을 능동적 언어능력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상황에 따른 말의 스타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진행 중인 언어변화가 갖고 있는 사회언어학적 평가에 따라서 중부방언의 중류층 화자들은 해당 변화의 확산과 저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19세기 후기라는 역사적 단계에서 중부와 전라방언 지역 화자들의 말에 수행되는 과도교정의 유형은 그만큼 해당 음성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확대되어 있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국어 방언의 지역적 변이와 분화에 대한 전반적인 온전한 양상은 19세기 후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방언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국어 방언의 지역적 변화와, 분화의 역사와 그 기원은 15세기 중세국어의 훨씬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이승녕 1971)³⁾. 그러나 해당 시기의 지역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충분한 문헌 자료

(전북대), 그리고 장승익 선생(전북대 대학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에서 파생된 모든 잘못은 다만 글쓴이에게 있다.

- 2)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엽에 걸쳐 전주 등지에서 간행된 완판본 고소설 부류와, 신재효가 개작한 판소리 다섯마당에 근거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의 언어적 성격과 그 유형 및 약칭에 대해서는 최전승(1986)을 참조. 완판 방각본 소설 부류에 대한 믿음만한 문헌학적 연구는 유태일(1983, 1990)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태영(2000:447-472)은 최근에 발견된 새 완판본 자료도 포함하여 완판 방각본 한글 고소설의 서지를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한 바 있다. 홍윤표(2007:5-28)는 완판본 고소설이 갖고 있는 문헌적 가치와 의미를 한글의 역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의 자료는 이병근(1970)과 이 글의 각주 (5)를 참조.
- 3) 이승녕(1971:352)은 국어 방언의 형성과 그의 발달에 대한 기술에서 고려 개성방언의 일단을 반영하는 12세기 초엽의 『계림유사』를 통해서 “방언 분포상 중부방언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12세기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고려 왕조의 성립과 더불어 중부방언이 형성되어 정치, 문화, 경제적 중심지의 배경으로 그 개신파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언어통일의 세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지역방언의 구분은 북부방언, 중부방언, 동부방언, 서남방언으로 재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p.408-9).

들의 결핍으로 인하여 내적재구 등을 이용한 방법 이외의 체계적인 방언사의 연구는 불가능하다. 16세기 국어, 그리고 근대국어의 단계로 진입하면서 지역에서 간행된 일부의 방언 자료들만이 그 당시의 지역방언 분화의 모습을 여러 언어 층위에 걸쳐 우연하게 단편적으로 보여줄 뿐이다.⁴⁾

국어사 또는 국어 방언사의 관점에서 19세기 후기라는 역사적 시기는 현대국어로 넘어오는 근대국어의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동시에, 현대국어의 지역방언들의 언어적 분화가 확립되어가는 진행 중인 변화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19세기 후기 지역방언의 모습과 시간적으로 한 세기 이상이 떨어져 있는 오늘날의 현대 지역방언의 그것들과 대조해 보면 특히 음운론과 형태론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주목된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지역방언의 변이와 변화 대부분은 이미 19세기 후기 또는 그 이전의 단계에서부터 출발하여 변이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지역방언이 보이고 있는 공시적 상태는 19세기 후기 또는 그 이전의 지역방언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음운규칙과 형태론의 규칙을 기반으로 그 적용 영역과 언어적 환경을 변이의 과정을 통해서 부단히 확산시켜온 통시적 변화의 결과이다. 이 글에서 논의하려는 19세기 후기 중부와 남부방언에서 추출된 몇 가지의 음성변화 유형은 역시 주로 노년층의 화자들 가운데 오늘날의 공시적 현상으로 지속되고 있다.⁵⁾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성변화들이 점진적으로 출발하여 언어 내적 또는 외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는 19세기 후기의 단계에 대한 고찰이 오늘

4) 국어사의 여러 시대적 단계에 등장하는 다양한 방언 관계 문헌의 목록과 개략적인 해제는 『방언학 사전』(2001, 방언연구회, 태학사)에서 <부록 1>(pp.435-487)에 정리되어 있다. 특히 근대국어 시기에 각각의 지역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문헌 자료들의 상세한 제시는 김주필(1994:22-50)과 홍윤표(1994:128-135)를 참조.

5) 19세기 후기 서울말을 포함한 중부방언 자료는 전통적인 다양한 간본 자료(이병근 1970)를 이용할 수 있다. 글쓴이가 이 글을 위해서 주로 이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ㄱ) Ridel 신부 중심의 파리 외방전도회에 속한 프랑스 선교사들이 공동 저술한 『한불저언』(*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1880)과 그 자매편 『한어문전』(*Grammaire Coréenne*, 1881), (ㄴ) Gale의 문법서 *Korean Grammatical Forms*(1894, 스과지남)과 『한영저언』(1897), (ㄷ) Underwood의 『한영저언』(1890)과 『한영문법』(1890), (ㄹ) 서제필이 주관하고 간행한 최초의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의 일부(1896.4.07.-1898.5.30).

날의 공시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1.2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글쓴이는 통상적인 과도교정이라는 용어의 규정과, 역사언어학과 사회언어학 그리고 실험 음성학 영역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권위에 근거한 과도교정의 유형에는 표준어 중심의 외재적 동기와 정체성 표현의 내재적 동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 3장에서는 『독립신문』 일부에 반영된 언어 자료를 중심으로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서 진행 중인 움라우트 현상, 전설모음화, 그리고 구개음화 현상과 관련된 과도교정이 그 당시의 전라방언에 등장하는 음운현상들의 종류와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격식체의 자료에서 실현되는 중부방언에서 과도교정의 계량적 빈도와 정량적 내용에는 전라방언과 큰 차이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서울 중심의 종류계층 화자들에 의한 과도교정의 형성 동기는 전라방언 화자들의 그것과 내적으로 상이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체언의 비어두음절 모임에서 표준어의 ‘-우’와 전라방언의 ‘-이’의 대응을 형성하고 있는 모임 대응을 바탕으로 잘못 형성되어 세력을 넓히기 시작하는 과도교정의 두 가지 종류를 논의하였다. 즉,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을 위시한 남부지역 방언 자료에서 부단히 출현하고 있는 ‘모시 ∞ 모수’(芻), ‘낙시 ∞ 낙수’(釣) 그리고 ‘씩 ∞ 썩’(帶) 등과 같은 공시적 변이를 말한다. 이러한 변이 현상 가운데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부터 출현하는 ‘모수’와 ‘낙수’형은 ‘장수 ∞ 장시’(商人), ‘국수 ∞ 국시’(麵), ‘가루 ∞ 가리’(粉), ‘하루 ∞ 하리’(一日), ‘마루 ∞ 마리’(宗) 등과 같은 표준어와 지역 방언형 간의 대응에서 표준어의 위신을 지향하려는 과도교정에서 파생되었을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 반면에, 같은 시기에 출현하는 ‘썩’(帶)형의 경우는 중부방언에서 ‘나뽀’(蝶) 계열과 원순모음화 현상이 발달된 남부방언에서의 ‘나뽀’ 계열의 모임 대응에서 남부지역 방언의 특질을 과도하게 실현시키려고 의도에서 이루어진 과도교정(hyperdialectalism)으로 추정하

였다.

제5장은 현대 전라방언에서 쓰이고 있는 전형적인 토속어들 가운데 ‘회쥬’(燒酒), ‘피슈’(砲手) 등이 ‘소주’와 ‘포수’로부터 일반적인 음성변화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 방언형들은 이미 한 세기 앞선 19세기 후기 단계의 전라방언 자료에 ‘포수→표수’, ‘쇼주→효주’와 같은 과도교정을 거쳐 출현하였음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과도 교정형들은 이 시기의 전라방언에서 생산적으로 작용하였던 음성변화를 수용하여 각각 ‘표수→피수’와 ‘효주→회주’로 결과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2. 19세기 후기 중부방언과 전라방언에서 수행되는 과도교정의 내적 차이점

2.1. 진행 중인 언어변화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과도교정

글쓴이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과도교정은 그 당시 사회 구성원들이 위신을 갖고 있는 중앙어와 대립되는 토착어인 전라방언의 언어 현상에 대한 일정한 규범 지향 인식과 태도를 선명하게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한다. 그 반면, 같은 시기의 중부방언 자료에 출현한 동일한 성격의 과도교정은 중부방언의 중류계층 화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한 표준어로서의 위신과 사회적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의 남부지역으로부터 확산되어 진행 중인 일정한 음성변화에 대하여 과도하게 반응함으로써 그 변화를 어느 정도 저지하고, 보수적인 형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표현으로 해석한다.

원래 과도교정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시대 순으로 전통적인 역사언어학, 사회언어학 그리고 실험 음성학의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세 영역에서 취급하는 내용은 언어 또는 변종 간의 접촉과, 여기서 비

롯되는 말의 규범 또는 위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공통점이 많다. 즉, 전통적 역사언어학에서 과도교정 화자들이 권위를 갖고 있는 표준적인 음운규칙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어떤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잘못 적용시키는 사례들을 지칭하여 왔다(Hock & Joseph 1996, Campbell 2000).⁶⁾ Campbell(2000:99-100)은 공식적 및 통시적 과정으로 수행되는 과도교정의 유형을 ‘유추’(analogy)의 하위 영역의 한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또한, Hock & Joseph(1996:186-188)도 역시 이것을 여러 방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추적 형태(hypercorrection: an interdialectal form of analogy)로 바꿔 부른다. 일찍이 유창돈(1971:46)에서 이러한 유형들을 역사적으로 ‘逆類推’로 명명한 사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 현대국어에서 표준어 ‘김치(沈菜), 깃(羽), 기와(瓦), 길쌈(紡績), 맏디(佐)’ 등이 각각 ‘딤치>짐치, 깃, 디와>지와, 질삼, 맞지-’에서 근대국어 시기에 남부 방언권에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하는 k-구개음화에 대한 중부방언 화자들의 반작용에서 비롯된 과도교정으로 잘못 형성된 어휘라는 사실은 국어사에서 잘 알려져 있다(유창돈 1971:46, 이기문 1972:200, 허웅 1985).⁷⁾

그 다음으로, 언어변화와 변이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언어학에서 이 용어가 최근에 확대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William Labov는 change from *above*(상층부 계층의 사회방언에서 전파되기 시작하는 변화)에서 확산

6) 허웅(1985:559)은 이러한 과정을 프랑스 언어지리학에서 쓰이는 전통과 용어를 이용하여 말을 고상하게 하려는 시도에서 일어나는 ‘잘못 돌이킴’(false regres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최근에 김주원(1997)은 구개음화에 근거한 과도교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하면서 이러한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려고 하였다. (1) 교정(바로 돌이킴), (2) 과도교정(너무 돌이킴), (3) 오교정(잘못 돌이킴). 그러나 글쓴이는 과도교정이라는 용어를 통상적인 넓은 의미로 파악하려고 한다. 따라서 과도교정의 의미는 위에서 열거된 세 가지의 과정이 어느 정도 포괄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주로 취급하려는 사례들은 김주원 교수의 분류에 따르자면 과도교정(잘못 돌이킴)에 해당될 것이다.

7)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과도 교정형들은 개인의 언어수행에서 시작되어 다른 상황에서 스스로 정리되는 과정(‘옳게 돌이킴’, 허웅 1985:559)을 거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역사적 형태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역사회의 랑그(문법) 속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사회언어학적 배경은 잘 알려진 바 없다. 예를 들면,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서 일어나는 과도 교정형 ‘점심(점심), ‘기림길(지름길), ‘길기다’(즐기다), ‘겸잡다(점잡다)’ 등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된 ‘길쌈(<질삼)’ 등의 유형과 동일한 것이지만, 공식적인 용인을 받지 못했다.

되는 언어 변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 신분상으로 낮은 계층의 화자들이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계층을 모방하기 위해서 일정한 말의 스타일에서 나타내는 일종의 뛰어넘기 방식(cross-over pattern)을 과도교정으로 규정하였다(1972:244-45). Labov(1972)에 의하면, ‘뛰어넘기 방식’은 중하류 계층에 속하는 사회집단의 화자들이 더 높은 신분(즉, 더 권위 있는)에 속하는 중상류 사회집단의 화자들처럼 말하려는 의도에서, 격식체 말의 스타일(낭독체와 단어목록 읽기체)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중상류 계층에서보다 표준형을 더 높은 빈도로 구사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 결과, Labov(1972)는 현대 도시방언에서 수행되고 있는 위와 같은 과도교정의 행위가 표준형의 전파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언어변화에 가속도를 부여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게 되었다.⁸⁾

끝으로, 또 다른 과도교정이라는 용어는 역사음운론의 대상을 음성학 중심의 정밀한 실험음운론의 영역으로 환원시킨 Ohara(1989, 1993, 2003)의 일련의 연구에서 수용되었다. 여기서 음성변화를 야기하는 주체는 어떤 언어음을 지각하고 청취하는 청자들인데, 과도교정은 이들이 화자가 산출한 언어음을 정확하게 청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음성변화를 지칭한다. 청자들이 자신이 들은 언어음을 다시 복원하여 내는 경우에 원래의 언어음이 갖고 있는 표적보다 더 높게(더 정밀하게) 지각하게 되어 그대로 발음하려는 상황을 과도교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h-탈락 현상이 비표준어인 지역에서 egg를 h-탈락에서 결과된 것으로 잘못 청취하고 h를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hegg형을 산출케 된다는 것이다.⁹⁾

과도교정이라는 용어를 원용하는 위의 세 가지 영역은 일정한 언어사

8) 언어변화의 전과 과정에서 과도교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Labov(1972)는 마사스 비너드(Martha's Vineyard)에 관한 본격적인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또한 뉴욕시 언어사회에서 중하류 계층에 속하는 단일한 사회 성층이 시도하는 빈번한 과도교정 행위를 검토하고, 이러한 현상이 언어변화의 과정에 끼치는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9) Ohara(1993)는 청자 중심의 입장에서 청취한 발음을 정밀화시키는 데에는 hyper-corre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그 반대의 상황, 즉 청취한 발음을 잘못해서 단순화시키는 hypo-correction이라는 용어와 짝을 이룬다. 실험 음성학의 기반 위에서 자세한 설명은 Ohara(1993, 2003) 및 Smith(2007)을 참조.

회에서 규범형으로 간주되는 언어형식을 구사하려는 의도에 의해서 화자 또는 청자들이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형태를 잘못 산출하게 되는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교정의 구체적인 성격은 본질적으로 사회언어학적 상황으로 소급되는 것이다(Baugh 1992:501). 19세기 전라방언과 관련하여 글쓴이가 이 글에서 사용하려는 과도교정의 개념은 이 시기의 남부 지역방언 화자들이 권위 있는 중부방언의 영향과 압력에 의해서 토착어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중부방언 중심의 언어 모습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언어규칙을 잘못 적용하는 언어적 행위로 규정한다. 최전승(1987:341)에서는 이 글에서 취급하려는 과도교정의 부류와 상이한 다른 유형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전주에서 간행된 방각본 고소설의 독자 계층은 호남 중심의 상인과 농민층이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경제적 안정을 얻은 호남평야의 소작 농민층이 대부분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 유탉일(1983)의 견해를 수용하였다. 따라서 고소설에 반영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역시 이 계층 중심의 토착어인 사회방언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는 당시의 소작 농민층과 상인 계층은 해당 지역방언의 특질에 민감하였을 것이며, 아울러 중앙어의 사회언어학적 규범을 사회적 접촉을 통하여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언어생활 가운데 과도교정이 빈번하게 출현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사정이 그대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¹⁰⁾

그러나 산발적인 과도교정의 행위는 개인어로 끝나버릴 수도 있으며, 시행착오를 거쳐 다시 올바르게 수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의 짧은 수명의 과도교정은 잠재적인 언어변화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글에서 제시되는 과도교정의 유형들은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남부방언 등지에서 그 생명력을 여

10) 최근 소신애(2007)는 20세기 초엽 함북방언 자료를 중심으로 ‘ㄷ’ 구개음화와 관련된 과도교정의 유형을 점검하면서 언어변화 기제로서 작용하는 과도교정의 종래의 전통적인 개념을 다시 검토하고, 이 현상을 발화 해석 과정에 있어서의 재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문법 내에서 수행되는 구체적인 실현 원리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전히 지속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들은 19세기 후기와 오늘날의 전라방언에서 끊임없이 다른 화자들에 의해서 모방되어 확산 전파되는 지구력을 보유하고 있는 언어변화에 속한다.

2.2. 외재적(overt) 위신과 내재적(covert) 위신에 따르는 과도교정

사회계층 중심의 사회언어학적 기반에서 이루어진 언어변화에 대한 관찰에서 일정한 개신의 전파와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신’(prestige) 또는 ‘권위’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대체로 화자들이 지향하려는 사회적 규범형이나 표준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취급하려는 과도교정의 유형도 이러한 위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위신 자체에 근거한 단선적인 설명은 문제점들이 많다(Swann et als 2004). 해당 언어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지역에서 무엇을 위신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그 지시하는 내용이 서로 상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Labov(1972)는 ‘외재적’ 위신과 ‘내재적’ 위신을 서로 구분하려고 한다. 전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상류 계층의 말 또는 지역적으로는 표준어의 규범형과 연관되어 있는 위신을 뜻하며, 그 아래의 단계에 있는 중하류 사회계층 또는 지역방언 화자들에게 ‘위로부터의 압력(변화)’을 주도한다.¹¹⁾ 따라서 외재적 권위에 근거한 표준형은 신분의 표지가 된다. 그 반면, 후자는 해당 계층 또는 지역의 자긍심 또는 유대성에 근거한 위신의 개념으로서, 표준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토착어 중심의 방언을 사용하려는 위신으로 해당 화자들에게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행

11) Labov(1972:123)에 따르면, ‘위로부터의 압력’(pressure from *above*)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표준어 또는 규범의식에 근거하여 각각의 언어형식에 공공연하게 의식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교정의 힘을 말한다. 여기에 대립되는 용어인 ‘아래로부터의 압력’(pressure from *below*)은 규범어와 상관이 없는 계층의 말에서나 방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화자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무의식적으로 표출시키기 위해서 작용하는 사회적 압력을 뜻한다.

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착어 중심의 지역방언형들이 일정한 사회의 구성원들 집단에서 소속감의 표현 또는 충성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은밀한 권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내재적 위신에 근거한 토착형들은 집단 유대성의 표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 위신에 근거한 과도교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낮은 사회계층의 말과 고유한 지역방언형들이 지속되고 발달되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Downes 1998:185-86). 이 글에서 취급할 과도교정의 유형들 가운데 일부는 남부 지역사회 방언에 대한 내재적 권위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사회언어학적 환경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외재적 위신에 근거한 과도교정이 한 단계 낮은 사회계층 또는 지역방언의 화자들에서만 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중상류에 속해 있는 계층이나 규범형 중심의 중앙어를 구사하는 지역사회 자체에서도 과도교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같은 중부방언과 여기에 대립되는 지역방언에서 수행된 동일한 모습의 과도교정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화자들이 시도하는 동기는 서로 상이하다. 예를 들면,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와, 이와 대조되는 같은 시기 개화기의 산물인 『독립신문』에 전통적인 ‘즈름길’(抄路)에 대한 ‘기름길’형이 똑같이 등장하였다.

(1) ㄱ. 종용훈 길림길로 몬져 가서(춘,동.150),

ㄴ. 풍일 비를 맞고 힝진하야 기름 길노 산에 올라 쫓차가니<독립 96.8.20③>,¹²⁾

By-way, 기름길(Underwood, 『한영족언』1890: part II, p.32)∞

12) 이 글에서 다룬 『독립신문』은 글쓴이의 사정에 의해서 창간호인 1896년 4월7일자부터 1898년 5월 30일까지의 전산 입력 자료에 한정하였다. 이 전산 자료는 황용주(국립국어원) 선생이 글쓴이에게 제공해 준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감쪽새 1.5.5 Beta 버전을 이용하여 해당 용례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끌어내진 용례들은 영인본 『독립신문』(전 9권, 1981, 갑을출판사)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거쳤다. 『독립신문』 자료 가운데 위에서 언급된 기간 이외의 예들은 글쓴이가 찾아서 추가로 첨가한 것이다.

『독립신문』 자료의 인용은 <독립96.8.20③>과 같은 방식으로 축약하였다. 즉, <독립96.8.20③>은 1986년 8월 20일자 3면에 나타난 예를 가리킨다.

즈럼길(동, part I, p.174).

cf. 척경은 지럼길(捷徑, 관성제군명성경언해, 117).

이러한 ‘기럼길’형의 사용은 전라방언 자료에서는 그렇게 생산적인 출현 빈도를 보이지는 않지만, 중부방언 중심의 다양한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먼저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 등장하는 과도 교정형 ‘기럼길’(중철 표기를 일단 무시한다면)은 이 방언지역에 특징적인 고유한 k-구개음화의 흔적을 제거하고 위신을 갖고 있는 중부방언의 형태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 반면에, 대체로 19세기 후반의 중부방언을 대변하고 있는 『독립신문』(1986)에 나타나는 ‘기럼길’형은 지역 방언형을 배제하고 규범어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서울 중심의 화자들이 과도하게 대응한 결과이다.¹³⁾ 이 형태는 20세기 초반에 간행된 林圭의 『日本語學, 音・語編』(1912)에서도 반복되어 사용된 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립된 형태는 아닌 것 같다.¹⁴⁾ 기럼길은 도리어 손(損)입니다(p.208). 19세기 후반의 『한불증언』(1880 : 557)에 이 형태는 보수적인 ‘즈럼길’로 선정되어 있으나, 거의 20년 후에 간행된 Gale의 『한영증언』(1898: 766)에서 이 형태는 개신형 ‘지럼길’로 교체되었다. 그 반면에, Underwood의 『한영증언』(1890)의 표제어 가운데 다시 ‘즈럼길’(徑路, A short cut, a by-road, p.174)로 복원되어 있는 사실을 보면 이 시기에 말의 스타일에 따른 ‘즈럼길↔지럼길’의 교체가 변이의 형식으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1)의 ‘기럼길’형은 ‘즈름길>지름길’의 전설모음화를 수행한 이후에 ‘지름길→기럼길’과 같은 과도교정을 수행한 형태로 해석된다.¹⁵⁾

13) 근대국어의 t-구개음화와 관련된 과도교정을 고찰한 김주필(1944:66)도 중앙어와 남부방언에 일어난 과도교정은 화자들의 의식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즉, 중앙어의 교정은 부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남부방언의 표지를 회피하려는 수단인 반면에, 남부방언에서의 그것은 위신을 갖고 있는 중앙어의 표지를 지향하는 데에 기원된다는 것이다.

14) 1936년에 확립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조선어학회)에서 ‘지름길’이 공식적으로 표준어로 확립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 모음집에는 20세기 초엽 서울지방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공식적 변이형인 ‘즈름길↔지럼길↔질레길’(p.33) 등이 선정된 단일 표준어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과도 교정형 ‘기럼길’이 실려 있지 않은 사실을 보면, 이러한 과도 교정형의 출현 빈도가 생산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과도 교정형 ‘기름길’의 형성은 위에서 언급된 표준어 ‘김치(沈菜), 깃(羽), 기와(瓦), 길쌈(紡績)’ 등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 것이 분명하다. 이들 형태는 원래가 서울방언에서 어두 초성의 자음이 ‘ㅈ’이었거나, t-구개음화를 수용한 결과 이차적으로 경구개음 ‘ㅈ’으로 변화되었으나, 남부 지역방언에서 확립된 일종의 전형화 표지인 k-구개음화를 거친 형태로 화자들이 잘못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이것들은 ‘길>질’ (道), ‘기름>지름’ (油) 부류와 같은 과정을 거친 전형적인 남부 방언형으로 오해될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의 사실은 남부방언에서 기원된 k-구개음화가 중부방언에도 이미 확산되어 중류계층을 제외한 다른 사회 계층의 말에서와, 일상어의 스타일에까지 도달해 있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¹⁶⁾ 따라서 서울말 중심의 중류계층 화자들은 격식체에서 토속적인 남부 방언형과 유사하게 바뀐 ‘지름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에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는 k-구개음화를 해제시킨 결과 과도교정이 일어나게 되었다.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의 격식체(formal style)에 해당되는 말의 스타일을 주로 대변하는 『독립신문』(1896.4.7.-1898.5.30.)을 조사해 보면, 위에서 언급된 성격의 과도교정이 k-구개음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시기의 전라방언 자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들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실현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전기와 후기에 걸친 방언사의 단계에서 주로 남부 지역방언 등지에서 기원되어 다른 지역으

15)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일반화되어가는 전설모음화 현상(스,즈,츠>시,지,치)에 대한 기술과, 여기에 근거한 다양한 과도교정의 종류는 최전승(1986, 2004)을 참조.

16) 그러나 19세기 후기의 단계에서도 k-구개음화 현상은 일정한 사회 계층에 따라서 서울방언을 포함하여 경기도 일대의 방언에까지 확산되었음이 분명하다. 단지, 이상적인 표준어의 규범(교양 있는 말씨)을 통해서 이 현상이 중류계층에까지 수용되지 못한 것 같다. 오늘날 경기도 방언 등지에서 수집된 노년층 화자들 중심의 방언 자료에 k-구개음화를 수용한 많은 예들이 관찰된다. ‘김치(김치), 짐장(김장), 지침(기침), 줄(굴), 질(길), 짐(김), 꺾다(꺾다), 지둥(기둥), 지우제(기우제) 등등(김계곤 2001). 이러한 사실은 1930년대 서울말 중심의 변이형들을 망라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에서도 관찰된다. [ㄱ과 ㅈ의 통용]: ‘ㄱ을 취함’ 항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당시에 선정된 표준어들이 비표준형들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굴(줄), 길(질), 길쌈(질쌈), 기름(지름), 김장(짐장), 김치(짐치, 짐채), 깃(깃), 꺾다(꺾다), 기지개(지지개), 기적(지적)(p.2-3).

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음성변화, 예를 들면, 움라우트, 구개음화, 전설모음화, 자음 앞에서 y계 이중모음의 변화, 체언어간말 설단자음의 변화(구개음화와 유추에 의한 확대) 등과 같은 다양한 부류들이 중부 방언지역의 일정한 사회계층이 구사하는 말의 스타일에까지 도달하여 있었음을 뜻한다. 단지 이러한 변화들은 중부방언의 중류계층 화자들의 격식어에까지 규범에 해당되는 침투하지는 못했던 것이다.¹⁷⁾ 19세기 후기 『독립신문』의 언어에 나타나는 움라우트, 전설모음화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구개음화 현상 가운데 그 반작용으로 수행되었다고 추정되는 과도교정의 몇 가지 예들과 그 형성 배경을 제3장에서 제시하려고 한다.

3.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서의 과도교정

3.1. 진행 중인 움라우트와 y계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대한 과도교정

서울 토박이 부인 한상숙 노인(당시 74세)이 자신의 한평생을 자연스러운 일상어체로 조사자 앞에서 구술한 『민중 자서전』자료집에 반영된 서울말을 검토한 이병근(1992:18)은 이 구술자의 말에 움라우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구술자료를 살펴보면, ‘핵교’(학교, p.27), ‘넙편’(남편, p.138), ‘꼴띠기’(꼴뚜기, p.64), 쨌여(절여, 소금을 삼삼하게 쨌여, p.77), 웅겼으니(웅겼으니, p.89) 등과 같이 다른 여타의 남부방언에서의 사례와 거의

17) 김주원(2000)은 음운사의 측면에서 국어 방언사 기술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방언 간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소수의 자료로 어떤 특정 지역의 방언이라고 본 언어 사실에 대해서 더 많은 문헌을 검토해 보면 그것이 특정 지역의 방언이 아닌 더 넓은 지역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말 전체의 언어현상인 경우를 볼 수”(p.182)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김주원 교수의 언급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대등한 현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음운변화의 강도, 즉 음운규칙의 적용 환경의 범위, 입력의 유형, 확산의 정도 등과 같은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다. 어떤 음성변화의 진원지에서는 그 강도(일반화)가 강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규칙의 일반성이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단계에서 대부분의 지역방언에 동일한 성격의 변화가 관찰된다 하여도 그 음운규칙의 정량적(quantitative) 성격과 계량적(quantitative) 성격의 측면에서 고찰하여야 된다.

비슷하게 움라우트 실현형이 등장한다. 더욱이, 한상숙 노인의 구술자료에 출현하는 다음과 같은 움라우트형들은 실현 위계가 높은 전형적인 남부방언의 보편적인 형태에 접근하고 있다. ‘쇠주’(소주, p.43), ‘-째리’(오전째리, p.80; 스물 몇 평째리, p. 171), ‘채레’(사당 채레 지내구, p.58), ‘덴추’(단추, p.108), ‘젤여서(절여, 삼삼하게 젤여, p.77).¹⁸⁾ 이와 같은 움라우트 현상은 경기도 화성군에 출생하여 서울 양반과 결혼하여 20세부터 서울로 시집와 살고 있는 당시 87세 이규숙 노인의 『민중 자서전』 구술자료(1992,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다. 즉, ‘웬수’(원수, p.46), ‘괴기’(고기, p.152), ‘씩엿구나’(속이-, p.101), ‘죽이-’(죽이-, p.94), ‘쫓겨’(쫓기-, p.40) 등등.

이러한 서울말에서의 비교적 생산적인 움라우트 현상과 남부방언, 특히 전라방언의 공식적 그것과의 차이를 대조하면, 음운규칙의 생산성과 그 확대 여부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 서울말의 움라우트 규칙은 사동과 피동의 접사와 통합되는 경우만 제외하면 대체로 그 적용 영역이 형태소 내부에만 한정되어 있다. 서울 중류계층의 규범적인 서울말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어에서 움라우트 현상의 수용은 원칙상 1930년대부터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¹⁹⁾ 따라서 움라우트 현상에 관한 한, 오늘날의 개정된 표준어도 역시 언어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²⁰⁾ 오늘날의 서울말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라우트 현상의 일부는 19세기 후기의 중부방언으로 소급된다(이병근 1970:380-381). 그러나 당시의 서울말을

18) 「서울토박이 부인 한상숙의 한평생」(뿌리깊은 나무 민중 자서전, 18) 가운데 움라우트 실현형으로 특히 ‘덴추’(단추)형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 이유는 전남과 전북의 지역방언에서 ‘덴추’의 방언형은 매우 드물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아래의 각주 (20)도 아울러 참조.

ㄱ. 고를 안달구 덴추 매(p.108), ㄴ. 조고리에다 적삼해 입은 덴추 매서 달아, 덴추를 매지(p.108), ㄷ. 그렇게 깨기구 적삼이구는 죄 덴추를 다는데(p.109).

19) 1930년대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 조선어학회)에서 움라우트 현상에 대한 표준어 수용과 억제에 대한 공식적 기술은 최전승(2004:262-275)을 참조.

20)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1)』(국립국어연구원, 1997)에서 25대째 서울에서 살아 온 대학원 출신의 bht(당시 74세)씨가 자연 말화 속에서 서울말과 표준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그에 의하면, 어렸을 때 서울에서 ‘돈’을 ‘뉰’, ‘안경’을 ‘엔경’, ‘학교’도 ‘핵교’로 사용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표준어가 각각 ‘돈, 안경, 학교’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라 했다. 또한, 그는 토박이말로 ‘단추’도 ‘덴추’라고 말하는데, 표준어가 ‘단추’이지만 보통 말할 때는 ‘덴추’로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p. 306).

사용하였던 중류계층의 규범에서도 일상어에 수용된 움라우트 현상이 격식어에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억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독립신문』(1896.4.7-1898.5.30)에 반영된 격식어에서 움라우트 현상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유형의 과도교정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2). ‘벗기->뻬기->뱃기-’(使脫),

- ㄱ. 잡아 가죽을 뻬겨 파라 큰 리득을 보나니라<독립97.07.03>.
 - ㄴ. 몽둥이로 홀터 가죽을 뻬기는 고로<독립97.08.10>.
 - ㄷ. 병당의 복장과 괴계를 억지로 뻬긴죽 병당이 죽기로 방식 하니<독립97.10.07>.
- cf. 순검들의 양복을 뻬기고<독립96.8.18①>,
가죽 뻬기라고 든드지 아니호는<독립97.5.4③>.

(3). ‘뱃기->뻬기->뱃기-’(寫),

- ㄱ. 훈령을 한문과 국문으로 뻬겨 방곡에 곳곳마다<독립97.10.21>.
 - ㄴ. 독립 신문에 난 전보와 외국 통신을 뻬기는 일이 좃커는 조호나 어느 신문에서 뻬긴다는것을 설명 호는것이<독립98.06.28>.
- cf. 전일에 주본을 일기에 또 뻬기라 하다<독립97.5.1②>,
설시 호는 규칙을 뻬겨 보내니<독립97.5.11③>.

(4). ‘떡여>뻬여->뻬여-’(使食).

- 정부를 뻬여 살니는 사람들을 이럿케 박대 호는것이<독립98.04.28>.
- cf. 가져 온 물을 먹이지 말고 기여히 쓰린 후에<독립96.5.2①>.

위에서 제시된 움라우트의 과도교정은 주로 피동화주 ‘어’에만 국한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의 비격식어에서 가장 기원적인 ‘아’와 ‘어’의 움라우트 현상이 다른 피동화주 모습들에 비하여 생산적이었음을 의미한다.²¹⁾ 같은 시기의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움

21) 19세기 후기『독립신문』에 등장하는 움라우트 현상 가운데, 몇몇 어휘에 걸쳐 ‘으’의 움라우트 실현형들이 이중모음 ‘의’로 실현되어 있다. ‘으’의 움라우트에 의한 피동화음이 /iv/로 이중모음화 하는 음운론적 과정은 같은 시기의 전라방언 자료에서도 생산적으로 확대되어

라우트 현상은 모든 피동화주에 걸쳐 형태소 경계에까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움라우트에 근거한 다양한 과도교정이 적극적으로 등장하였음은 물론이다(최전승 1995:432-433). 그러나 이러한 과도 교정형들이 출현하게 되는 사회언어학적 배경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부방언과 남부방언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3)ㄱ의 과도 교정형 ‘벗겨’는 보수적인 ‘벗기-’(騰)에서 움라우트를 수행한 ‘벗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된 것이다. ‘벗기->벗기-’의 움라우트는 표준어로 수용된 극히 소수의 예에 속한다.『독립신문』에서도 이미 ‘벗기-’ 대신에 개신형 ‘벗기-’만으로 사용되었다. 1880년대 간행된 『한불증언』(1880:318)과 그 이후의 『한영증언』(Gale, 1897:410)에 ‘벗기다’(騰)형만이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전 부류에 선정된 고전적인 표제항은 당시의 격식어 중심의 보수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을 반영하는 다른 경전류와 같은 언어에서도 ‘벗기-’와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칩 벽기단 말이오(관성계군명성경언해, 6-), cf. 활을 베틀고(張弓, 21-).

그러나 이 자료에 다음과 같은 다른 유형의 과도교정도 출현하는 예들

있다(최전승 1986).

(ㄱ) 드리, 드러>디리, 디려(獻):

학도들이 힘을 다 디려 다름박질을 허더라<독립 2권 44호>,
이전과 꺾지 힘을 아니 디리고<독립97.3.6③>,
머리에 갑스 당귀 디리고<독립97.3.23④>,
물건은 일테로 문 안으로 디려 낫코<독립97.3.23③>,
목창 물 세필을 디리라 혼죽 나라물을 군슈가 디리라 하니 무슴 곡절인지 알지 못하고
물 세필을 본 군슈의게 디려 보내엿더니<독립97.4.29④>.

(ㄴ) 쑤드리->쑤디리-(推敲):

외국 사름의게 쑤디려 맞는거슬 분히녁여<독립96.8.18①>.

cf. 집 대문을 쑤드려 부수고 들어가<독립97.1.26③>.

또한, 이 자료에서 ‘우’의 움라우트형 가운데 ‘투전~튀전(關錢) 같은 실현 위계가 높은 예도 확인된다.

(ㄷ) 투전~튀전:

고관들이 쇼일노 튀전을 허엿더니<독립96.7.11①>,
순형 허던 순겸이 튀전 허던 사름들을<독립96.7.11①>,
나라에서 금허시는 튀전을 허시고도<독립96.7.11①>,
쇼일노 튀전을 허여 보앗다고<독립96.7.11①>,
무론 누구던지 튀전 허는 사름잇스면<독립96.7.11①>,
cf. 엽전 두푼 내기 투전을 허다가<독립96.9.29②>,
투전, 關錢(Underwood, 『한영증언』, 1890, part1, p.165).

을 보면, 이 시기에 일부의 중부방언 화자들은 특히 음절 초성에서 C+ya (특히, ‘벼’)에 대한 C+e의 구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이 중부방언의 격식어에서 일정한 자음을 선행하는 ‘어’의 움라우트를 회피하고자 하는 과도교정을 촉발시킨 것이다.²²⁾

(5). ‘베풀→벼풀-’(張),

- ㄱ. 법을 벼푸러 고침이 올키에<독립96.10.12>,
의론 안착을 미리 벼푸러 고히되<독립96.10.3①>,
ㄴ. 재판쇼로 보내여 각기 그죄티로 법을 베풀식<독립96.5.16②>.

(6). ‘베→벼-’(割).

- ㄱ. 엇더케 싱긴거슬 알아 벼지 안홀 물건은 벼지 안고 또 벼는 기계와 <독립96.12.1>,
낫슬 가지고 풀을 번다든지<독립96.8.13>,
그나무들이 다 자라 쓸만 하게 되면 벼여 파라<독립96. 8. 11>,
ㄴ. 아조 넘너 업슨 후에 비로쇼 살도 베고 오장을 열고라도<독립96.12.1>,
남산에 올라 가서 솔 베는 도적을 슬피고<독립96.5.14②>.

여기서 ‘베→벼’와 같은 과도교정의 유형은 위에서 제시했던 (2)-(4)의 예들을 다시 검증하게 한다. 즉, 움라우트의 실현형 ‘벳기-’, ‘떡여’ 등을 원래의 형태인 ‘벗기-’와 ‘떡여’로 되돌리지 않고, C+ya의 구성으로 이동

22) 이 글의 지정 토론자인 서형국 선생(고려대)은 위와 같은 ‘어’의 움라우트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인된 예들이 『독립신문』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중앙어 중심의 자료에서도 지속적으로 출현하였다는 사실을 보충적인 예와 함께 제시하였다. 그 예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 ㄱ. 방 안에 걸니여 잇는 의복을 벗기다가<1925.08.25, 민일신보,2>,
ㄴ. 영어를 벗기고 안젓든 순자(順子)는<1924.03, 방정환_이상한,61>,
ㄷ. 순자는 다시 영어를 벗기려고도 아니하고<1924.03,방정환_이상한, 62>,
ㄹ. 다른 조화에 음기여 벗기고 쓰기 실흔 째字는다.<1922.12. 나도향_넛날꿈,9>,
ㅁ. 쓰다달다는 말도 업시 떡기에만 급한 것가덜다.<1930xx심훈_동방의,28>.

또한, 이와 동일한 과도 교정형들이 20세기 초엽의 <신소설> 부류에서도 출현하고 있었다. 남편의 말도 듯기 전에 사과를 벗기다가, 무엇을 벗기여오. (최) 벗기는 것슬 벗기여 달는 말이오<1912류화우(상), 51>.

하려고 한 사실은 움라우트에 대한 교정과는 다른 성격이기 때문이다. (2)~(4)의 예들은 기본적으로 움라우트 현상에 의해서 도출된 ‘베-’와 ‘페-’ 음절 구성을 일정한 자음 앞에서 실현되는 C+yä>C+e와 같은 단모음화 과정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교정으로 형성된 것이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론에서 C+yä>C+e와 같은 y계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과정이 다양한 자음 앞에서 매우 생산적으로 발달되어 있었다(최전승 1986:194-217). 위에서 (5)~(6)의 과도교정 예는 이와 같은 음성변화가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서도 부분적으로 중류 이하의 계층에서나, 중류계층의 일상어에까지 확대되어 있었음을 알린다. 따라서 (2)~(4)의 예들은 이러한 음성변화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과도교정을 거친 형태들이며, 여기에 움라우트 현상이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이다.²³⁾

3.2. 진행 중인 전설모음화에 대한 과도교정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음성변화 가운데 생산적인 한 가지 유형은 치찰음 아래에서의 전설모음화 현상(스, 즈, 츠>시, 지, 치)이다. 일찍이 이병근(1970)은 19세기 후기에 간행된 전형적인 경전류 간본 자료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을 그 당시의 모음체계와의 연관 속에서 자세하게 논증한 바 있다.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서 전설고모음화는 다른 음성변화를 거쳐 나온 출력이 해당 음성조건을 이차적으로 갖추게 되는 경우(스, 즈, 츠)에도 적용되었다. 『독립신문』에 등장하는 ‘목심’(목숨)형은 ‘목숨>목슴(비원순화)>목심(전설모음화)’의 연속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다.²⁴⁾ 필경 죄를 넘고 목심을 일어 버틸터이니<독넙96. 4. 9①>. 또한, 중세국어에서

23) 이러한 사실은 전적으로 고동호 교수(전북대)와 정경재 선생(고려대 대학원)이 이 글의 원고를 논평할 때 지적한 것이다.

24) 19세기 후기 지역방언에서 실현되는 ‘흙(涎)>흙, 기흙(咳)>기흙’ 등과 같은 변화는 ‘우’ 모음에 뒤따르는 순자음의 영향으로 그 원순성 자질이 제거되어 평순모음 ‘으’로 전환된 결과이다. 이 변화에서 형성된 출력은 다시 전설고모음화의 입력이 되는 것이다(이병근 1970, 유창돈 1971). 19세기 후기 지역방언을 반영하는 다른 성격의 자료(경상방언)에서도 이러한 중간단계의 형태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ㄱ). 오즘누다, 오즘께(국한회어, 582), cf. 침, 침 배앗다(涎, 동. 311),

부터 계승된 ‘침’(唾液)과 ‘기침’(咳)에서 출발하여 현대국어에서 ‘침’과 ‘기침’으로 수용된 이른 형태도 이 시기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ㄱ) 기침, 기침하다 see 허소(Gale의 『한영조언』(1897:250); 침, 침 밧다(漉, p.812), (ㄴ)침을 밧지 아니 하고 더구 삼켰더니(『사과지남』, 1894:148).²⁵⁾

따라서 『독립신문』의 중부방언 자료 가운데에는 당시에 진행 중인 전설모음화에 근거한 반작용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과도 교정형들이 등장하고 있었음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7). ‘심다→습다’(植).

- ㄱ. 나무를 습으게 흥논디 그 나무를 습으는 날은 종목일이라<독립 96.8.11>,
 ㄴ. 이 나무도 만히 습으고<독립96.8.11>,
 ㄷ. 곡식 습으는 법과 우뭇 기르는 법<독립96.9.15①>,
 ㄹ. 집집마다 나무를 습으논지라<독립.10.29>,
 ㅁ. 여러 가지 나무 습을 싸흘 정흥라고<독립96.12.17>,
 ㅂ. 공흔 싸에 나무를 습어 빅성의 성업이 잘 되고<독립97.1.7③>,
 ㅅ. 밧에 습은 곡식들을<독립98.02.10>.
 cf. 벼를 심어야 조흔 줄노 알거니와 벼만 심어서<독립96.6.4①>.

(8). ‘-고 싣다→-고 습다’(보조용언).

- ㄱ. 조션이 중흥이 되게 흥번 흥논거슬 보고 습고<독립96.10.13①>,
 ㄴ. 사름이 학문도 비호고 습고<독립96.12.3>,
 ㄷ. 나라 일흥고 스퍼 벼슬흥고 습다는 말은<독립96.12.5>,
 ㄹ. 대개 나라 일을 흥고 스퍼니썸 벼슬을 흥고 스퍼다고 흥나<독립

ㄴ). 날숨들숨(出息入息, 국한회어, 153), cf. 날숨들숨(국한회어, 417),

ㄷ). 침 밧고 오즘 누기 흥며(태상감응편도설언해 1. 9ㄴ), 침 밧호며(동.1. 9ㄴ),
 우러러 침 밧트면 제 늦치 느려지느니라(재간 교린수지, 4. 2ㄱ).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 생산적으로 사용되었던 ‘목심(命), 오짐(尿), 한심(恨歎) 부류들도 위의 ‘침 > 침 > 침’이 수행한 동일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최전승 1986).

25) 그러나 Gale의 사전(1897)보다 약간 선행하는 Underwood의 『한영조언』(1890)에는 ‘침’과 ‘기침’형이 각각 보수형(침, 침 밧소, I. p.188)과 그 중간 단계의 형태(기침, 기침호오, II. p.62)로 나누어 등록되어 있다.

96.12.5>,

- . 지물 모호고 습푼 상각이 적기도 흐거니와<독립96.12.8>,
- . 사람을 도적놈으로 만들고 습거던<독립97.1.9①>.
- cf. 초선 말도 비호고 십고 영어와 한문을 비호고 십거던<독립 97.4.24③>.

(9). ‘짐작→증작’(斟酌).

- ㄱ. 길게 말 아니 하여도 대강 증작 흘뜻 흐더라<독립96.6.30 ①> ,
- ㄴ. 그사람이 죄가 잇거니 증작만 흐고<독립96.9.29①>,
- ㄷ. 그 나라 인민이 엇더흐 박성인지 증작 흐는거슨<독립97.2.2.①>,
- cf. 낙지부 고문관이 그 스세를 짐작 흐고<독립96.12.19>.

(10). ‘싫→슌-’(載).

- ㄱ. 슈뢰포 슬코 다니는 비가 이척<독립97.1.30.②>,
- ㄴ. 슈뢰포 슬코 다니는 비가 흐나<독립97.1.30.②>,
- ㄷ. 아라샤 사람의 물피 슬코 가는 물건을<독립97.1.14③>.
- cf. 은시저 두벌을 쇼에 실코<독립97.6.8③>,
선직과 짐을 실코 상향에 닷게드면<독립97.5.13②>,
물건을 마거로 실코 다니게 흐며<독립97.1.30.①>.

위의 예 가운데 (7)의 ‘심다→슴다’(植)와 같은 유형은 치찰음 아래 전 설모음화가 생산적으로 수행되고 있던, 같은 시기의 19세기 후기 전라방언과 경상도 방언 자료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나, 출현 빈도는 높지 않았다. (ㄱ) 외 습어서 파라시나(관, 박. 362), (ㄴ) 벼 습우다 種稻(국한회어, 43).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을 대변하는 『독립신문』(1896.4.7-1898.5.30)의 언어에 ‘심다→슴다’(植)의 과도교정이 원래의 형태 ‘심-’과 나란히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²⁶⁾ 보조용언에서 일어나는 (8)의 ‘-고 싶다→고 슌다’의 경우는 19세기 후기의 여타의 다른 방언 자료에서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언 자료의 특이한 사례에 해당된다. 과

26) 『독립신문』(1896.4.7-1898.5.30)에 ‘심다’와 과도 교정형 ‘슴다’(植)의 출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습어 7회/심어 19회; 습으고 1회/심으고 5회; 심으기 2회/습으기 1회; 심는 2회/습는 0회.

도교정된 보조용언 ‘습-’형은 특히 『독립신문』의 광고문에서까지 확대되어 생산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이 자료에서 원래의 보조용언 ‘-고 십-’과 과도교정을 수행한 ‘-고 습-’의 출현 빈도는 각각 23회씩으로 대등하다. 그리고 ‘-고 십거든’과 ‘-고 십은’과 같은 통사 구성은 주로 광고문에서 ‘-고 습거든’과 ‘-고 스펀’과 같이 전적으로 과도교정 형태로만 사용되었다.

(9)의 예는 ‘斟酌’에 대한 중세국어부터의 한자음 ‘짐작’이 ‘증작’으로 과도교정된 것이다. 관찰의 대상이 된 『독립신문』(1896.4.7.-1898.5.30.)에서 이어히는 원래의 형태로 45회 사용된 반면에, ‘증작’으로 단지 3회 출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교정은 상황에 따라 우발적으로 형성되는 동시에, 곧 이어 원래의 형태로 통제되기 때문에, 그 성격상 지속력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짐작→증작’과 같은 과도교정 부류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 다양하게 실현되어 있다(최천승 1986:321-322).

19세기 후기의 단계에서 중부방언과 남부방언 화자들은 ‘ㄷ’ 불규칙용언 가운데 일부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교체되는 ‘ㄹ’로 단일화하려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어간 단일화의 흐름이 해당되는 모든 ‘ㄷ’ 불규칙 용언들로 동시에 균질적으로 과급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의 중부방언을 반영하는 『독립신문』과 전주에서 간행된 완판본 고소설 부류에 등장하는 출현 빈도수를 측정하면, ‘실-’(載)의 어간 재구조화가 가장 선두 위치에 있었다.²⁷⁾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부수적

27) ‘ㄷ’ 변칙용언 가운데 ‘실-’(載)의 ‘실-’로의 재구조화는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을 반영하는 『독립신문』에서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가) 총 세 바리를 실코 동대문으로 나갔는디<독립96.5.26③>.

(나) 물건들을 사서 밭에 실코 장사차로 충청도로<독립6.9.10②>.

(다) 돈 실코 갖고 차가는 상고 차로 쓸 오십석 실코 계물포로 갖고<독립97.1.16③>.

(라) 노리기 두벌과 은시져 두벌을 쇼에 실코 그 고모로<독립97.6.8③>.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간행된 중부방언 중심의 다른 성격의 자료들에서 ‘실->실-’로의 전환은 보여주지만, 유기음 ‘ㅎ’의 형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이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ㅎ’의 출현은 이 용언의 어간말음이 모음 활용형에 준하여 ‘실-’로 바뀐 다음에 파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으) 실다, sil-ta, si-re, si-reun. 載, charger sur, mettre sur(un boeuf, un char, un bateau. 『한불증언』(1880:423). cf. 것다, ket-ta, ke-re, ke-reun, 步, marcher

인 음운 현상은 ‘신→실-’과 같이 어간 단일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운 어간 ‘실-’의 음절말 ‘ㄹ’은 뒤따르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초성을 유기음화, 또는 경음화 시킨다는 사실이다.

규칙 용언의 어간말 ‘ㄹ’이 후행하는 장애음을 유기음 또는 경음으로 전환시키는 일반적인 음운현상은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ㄷ’ 변칙 용언의 규칙화에 개입된 유기음화와 경음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구조화된 용언어간의 말음 ‘ㄹ’에 유기음 ‘ㅎ’ 또는 새로운 체계 외적 음소인 경음 ‘ㅇ’을 첨가하는 방법을 통상적으로 사용한다(최명옥 1982). 이와 같은 현상이 19세기 후기 국어의 방언 자료들에서부터 부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²⁸⁾

위에서 (10)의 예는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서 ‘신→실→싫-/실ㅎ-’과 같은 단계에서 치찰음 아래 전설모음화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과도교정을 수행한 형태들이다. 용언어간 ‘신-’(載)의 재구조화(11)와, 이어서 이루어진 과도교정의 예들(11-ㄱ)은 같은 시기의 전라방언 자료에서도 생산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 (11) ㄱ. 슈리의 슬코 설미의 슬코 쇠계 실코(판,박.388),
 주늬 등물을 슬고(삼국지 4.29ㄴ), 만이 슬코(충열,하.31ㄱ),
 슈리 우희 슬고(丁巳本, 조웅 3.34ㄴ).
 ㄴ. 뚝피 실고(심청,하.11ㄱ), 주늬등물을 슬고(삼국 4.29ㄴ),
 슈리 우의 슬고(정사본 조웅 3.34ㄴ), 거름 실고(판,변.544)〰복물
 실코(판,박.346),
 ㄷ. 지물을 실꼬(길동.13ㄱ), 잔득 실꼬(판,적.486),
 ㄹ. 슬을 실코(병오,춘.29ㄱ), 빅예 실코(판,심.192), 실코 갖다가(판,박.
 388),

(동,p.149).

(ㄷ) 슬만 먹고 말짐 실기(경판 20장본 흥부전, 5ㄴ),

cf. 말짐 실기(김문기 소장 26장본, 흥부전. 6ㄱ).

28) 19세기 후기 중부와 전라방언에서 ‘ㄷ’ 불규칙 용언의 재구조화와 관련된 유기음화와 경음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예들과, 이러한 음운 과정에 대한 가정은 최전승(예정)을 참조.

놉피 실코(충열,상.25ㄴ), 지물을 만이 실코(충열,상.20ㄴ),
 말 짐 실키(병진본 필사 박홍보.2ㄴ), 슈리 우의 실코(충열,하.17ㄴ),
 습신손을 실코 잇셔(판,퇴.276), 습신손을 실코 잇고(판,십.200).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서 진행 중에 있는 음성변화인 전설모음화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에 보수적인 규범 형태로 잘못 환원된 지금까지 과도 교정의 유형들은 당시의 개별적인 언어 수행 또는 화용론적 상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당대 화자들의 문법과 어휘부에까지 도달할 수는 없었다. 과도교정으로 형성된 형태가 19세기 후기 중부방언 화자들의 어휘부에까지 침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지속적인 출현 빈도수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치찰음에 연속되는 ‘으’ 모음이 전설모음으로 옮겨가는 전설모음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된 과도교정이 근대국어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높은 빈도수 때문에 유추작용을 거부하고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던 존재동사 ‘이시-∞잇-’(有)에 단일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추정한다. 즉, 18세기 후기에 이르러 자음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이시-’형이 점진적으로 ‘이스-’로 바뀌지기 시작하는 원리가 전설모음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되는 과도교정에 있다는 것이다(허용 1987:235, 이현희 1993:66, 최동주 1995:138).²⁹⁾ 당시의 음성변화의 관점에서 이러한 존재동사 어간에 실현된 변화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와 같은 과

29) 18세기 말엽 경기도 楊洲에 있는 佛巖寺에서 간행된 『경신록 언석』(1796)에 ‘이시->이스-’ (有)의 과정을 거친 개신형들이 보수형 ‘이시-’와 대등한 분포로 출현하고 있다.

아니 흘 재 이스라(84ㄴ), 기드러 되는 일도 이스나(84ㄴ), 칩의 이스매(84ㄱ), 빗줄 저 이스며(84ㄱ), 벽 하던이 이스니(48ㄴ), 일이 이스리니(7ㄱ), 이슬지라도(7ㄱ), 착훈 거시 이스면(7ㄱ), 죄칙이 이스면(6ㄴ) 등등.

그러나 과거시제의 선어말어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전연 확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시->이스-’와 같은 변화가 일단 먼저 확립된 연후에, 점차적으로 과거형의 구조에까지 확대되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히 너희등 경결흔를 보아시나(50ㄱ),
 촉싸 즌동의 신명이 이셔 문창직을 맞다시니(46ㄱ),
 이제 비록 양슈 진하여시나(43ㄴ).

위와 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경신록 언석』(1796)에서 ‘스>시’와 같은 전설모음화 현상을 수용한 여타의 다른 예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도교정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또한, 존재동사 ‘이시->이스-’에 일어난 과도교정의 작용이, 이것과 문법형태소 구성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과거시제 ‘아시-/어시-’에도 파급되어 ‘아스-/어스-’로의 연쇄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추정에 따르면, ‘시->스’의 과도교정의 힘이 존재동사 ‘이시-/잇-’이 참여하는 이른 현대국어 문법 범주의 영역에 혁신적인 재분석을 가능하게 한 셈이다.³⁰⁾

19세기 후기 중부방언, 특히 『독립신문』(1895.4.7-1898.5.30)의 언어에서 존재동사는 이미 ‘이스-’의 과도교정을 거치고, 자음어미 앞에서 교체되는 어간 ‘잇-’으로 단일화되어 ‘잇스-’의 형태에 도달하여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공식적으로 과도교정을 수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잇시-’형도 공존한다. 『독립신문』에서 보수형 ‘잇시-’(有)와 과도 교정형 ‘잇스-’와의 상대적 출현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ㄱ) ‘잇스-’ 계열: 978회/‘잇시-’ 계열: 233회; (ㄴ) ‘잇슬: 390회/잇실: 45회. 이와 개념상 대립되는 또 다른 존재동사 ‘없-’(無)의 경우에, 전설모음화를 수용하지 않은 ‘업스-’ 계열의 출현 빈도수가 380회에 이른다. 그 반면에 이 변화에 적용된 ‘업시-’ 계열은 48회에 불과하다. 여기서 출현 빈도에 있어 열세를 이루고 있는 ‘잇시-/잇실’ 계열의 음운·형태론적 신분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이 형태들은 『독립신문』언어 자료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과도 교정형 ‘잇스-/잇슬’의 단계에서 당시에 진행 중에 있는 전설모음화에 적용된 결과인가. 둘

30) 글쓴이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근거를 바탕으로 18.9세기의 단계에서 일어난 ‘시->스’와 같은 과도교정이 존재동사 ‘이시->이스-’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오늘날의 공식적 지역방언 가운데 아직도 ‘이시-/잇-’의 비자동적 교체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 방언이 존재한다. 제주 방언에서도 어느 지역 방언에 못지않게 매우 잘 발달된 전설고모음화를 관찰할 수 있다.

둘째, 역시 평안도와 함경도 방언 일대에서는 오늘날까지 이 존재동사의 활용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19세기 당시의 ‘이시- > 이스-’의 변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방언, 특히 평안도 방언에서 전설모음화는 이 방언에서 고유한 음성변화로 발달하지 않았다(小倉進平 1944:385를 참조).

셋째, 문헌어에서 ‘이시- > 이스-’와 같은 변화가 발견되는 18세기 후엽의 자료 자체 내에서 전설모음화 현상이 전연 반영된 바 없다(최전승 2004:539).

째, ‘시→스’와 같은 과도교정을 거부하고 있다가 자음어미 앞에서 교체되는 어간 ‘잇-’으로 단일화(잇시-/잇실)를 이룬 것인가.

또한, 같은 자료에서 문법화 과정을 밟아 온 과거 형태의 경우에도 ‘앗스-/엇스-’형은 618회인 반면에 ‘앗시-/엇시-’의 예들은 204회에 걸쳐 사용되었다.³¹⁾ 『독립신문』에 반영된 과거시제 이형태들의 이러한 상이한 출현 빈도수는 19세기 후반에 선교사들이 작성한 『한어문전』(Grammaire Coréenne, 1881)이나, 『한영문법』(Underwood, 1890) 등에서의 기술과 대조된다. 『한어문전』(1881)에서 과거형은 ‘시→스’의 과도교정이 전연 과급되지 않은 ‘앗시-/엇시-’로만 기술되어 있다. 혀여시면, 혀셔시면, 갓시면, 먹어시면, 잇서시면(잇스면), 업서시면(업스면), 셋서시면(셋스면), 하갓시면, 잇갓시면, 등등(p.91). 이와 같은 관찰은 『한영문법』(Underwood, 1890)과 『언문말칙』(J. Scott, 1887)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다. 특히 Underwood(1890)는 과거와 미래시제 문법 형태소에 연결되는 연결어미(connective)는 언제나 ‘시’라고 기술하고 있다 (p.144-5). 주엇소-주엇시면-주엇시나(he gave), 맛갓소-맛갓시면-맛갓시나(it suited), 가갓소-가갓시면-가갓시나(he will go), 엇갓소-엇갓시면-엇갓시나(he will get).

그 반면에, Underwood(1890:144)는 ‘없-’의 활용형 ‘업소^o업슨^o업스면’ 등을 제시하면서 전설모음화가 적용된 ‘업시면’형이 많이 사용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장스에는 리 훈푼 업시니 훈동만동호오(p.182). Underwood(1890)에 제시된 한국어 예문들을 검토해 보면, 전설모음화에 대한 보수형과, 이 음성변화를 수용한 개신형들이 공존하고 있다.³²⁾ 그렇기 때문에, 이들 문법

31)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자료에서도 존재동사의 활용 양상은 그 당시의 중부방언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춘향전 계열의 84장본 『열여춘향수절가』에 사용된 존재동사의 출현 빈도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잇스-’: 11회/ ‘잇시-’: 5회. 그 대신, 과거형은 네 가지의 이형태들로 나누어 등장하였다. (ㄱ) ‘앗/엇시-’형은 6회, (ㄴ) ‘아/어시-’형은 5회, 그리고 (ㄷ) ‘앗/엇스-’형은 24회, (ㄹ) ‘아/어스-’형은 21회.

32) Underwood(1890)의 예문 가운데 당시의 전설모음화 현상을 반영하는 예와, 그러한 변화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예들을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도희를 차질 수가 업소(p.278), 신 차지러 왓실 때(p.254),

그 개가 아니 짓즈면 도켓소(p.252),

ㄴ). 물이 먹기 슬커든 차를 먹으려무나(p.184), 일 호기 슬커든 가림(p.184), 증그럽소, 증그러워(p.185).

서에서 기술된 과거형태의 ‘-엇시-/~앗시-’의 ‘시’가 전설모음화와 그 과도교정에 비추어 어떠한 단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는 더 면밀한 관찰을 필요로 한다.

3.3. 남부방언의 전형화 표지 k-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

현대 경기도 방언의 조사에 따르면(김계곤 2001),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서 당시에 남부지역에서 확산되어 올라온 k-구개음화 현상이 중류계층 이하의 계층에서 또는 중류계층의 일상어에서까지 어느 정도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³⁾ 그러나 여전히 중류계층의 말 또는 격식체에서 k-구개음화는 그 진원지인 남부방언의 전형적인 방언 표지(stereotype)로 중부방언의 화자들에게 인식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질삼→길쌈’(紡織) 유형의 과도교정이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1930년대 표준말 선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 ‘지직’과 1930년대 공시적 변이를 보였던 ‘기직’(齒)형도 표준어로 포함된다.

현대국어의 표준어에서 왕골자리를 가리키는 ‘기직’(齒)이라는 어휘는 일상어에서 거의 쓰이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중세국어의 ‘지즙’로 소급되는 형태이다(남광우 1997:1274). 따라서 오늘날 확인되는 ‘지즙>기직’과 같은 변화 과정에는 ‘질삼>길쌈’(紡織) 부류에서와 동일한 과도교정이 개입되어 있다. 1920년대 『조선어사전』(총독부 편)에 이미 ‘기직’형이 단독 표제어(p.149)로 실려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역사적으로 오랜 ‘지즙>지즙>지직’과 같은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전설모음화와 우절말 자음의 간소화)을 밟은 다음에 다시 ‘지직→기직’으로 과도교정을 거쳐 재구조화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의 일이었다.³⁴⁾ 그러나 1936년에 이루어진 사정한 『조선어 표

33) 『독립신문』의 자료 가운데 k-구개음화에 적용된 ‘가륙->자륙’과 같은 예도 등장하였다. 어려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니 참 자륙흔 일이더라(독립96.12.10),

cf. 횡장의 늑흔과 인망의 가륙 흡을 말 흘터이요<독립970902>.

34) 과도교정으로 형성된 ‘기직’은 19세기 후기의 중부방언 자료에서는 20세기 초엽 <신소설>

『준말 모음』에 중부방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직’과 ‘지직’의 이형태들 가운데 ‘기직’이 표준어로 선정된 사실로 미루어 보면(p.3), 방언형으로 격화된 ‘지직’형도 그 당시에 사회계층에 따라서 꾸준히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립신문』에는 k-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인 ‘김치’와 ‘길삼’형이 단독형으로 이미 고정되어 쓰이고 있으며, ‘점잖-’(愼重)과 ‘즐겁-’(熹)에서 과도교정을 거친 ‘점잖-’과 ‘길겁-’의 사용 빈도가 원래의 형태들보다 더 높게 등장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12) ‘점잖→점잖-’;

- ㄱ. 가난 흐드러도 점잖하 사람으로나 보여야<독립96.5.21①>.
- ㄴ. 웃사람들이 아리 사람들을 점잔케 디점 흘티이라<독립96.6.27②>.
- ㄷ. 공스가 점잔코 신실 하게 교제를 잘흔 연고더라<독립96.10.1③>.
- ㄹ. 첫지 사람이 점잔케 보여야 하고 들지 거긔 말을<독립96.11.14>.
- ㅁ. 사람들이 모든 점잔코 부지런하고<독립97.1.16①>.
- ㅂ. 이러케 찌드느거든 도로혀 점잔치 못하고<독립97.1.30.①>.
- cf. 아모리 점잔흔체 하여도 사흘 굴므면<독립97.10.09>.

(13) ‘즐겁->질겁->길겁-’;

- ㄱ. 농스 혼 일을 질거 하며<독립97.2.16①>.
- ㄴ. 그 나라안에는 사람을 길겁게 하고 정결 하다는 말은<독립97.4.6②>.
- ㄷ. 모든 학원들이 독립가로 길거흔 후에<독립97.7.11>.
- ㄹ. 두 나라에서 다 길거워 흘지라<독립97.3.27②>.
- ㅁ. 돈 낸 사람들은 길거워 흘지라<독립97.3.30②>.
- ㅂ. 온 아라샤가 모도 길거워 흥것을<독립97.08.07>.
- cf. 돈과 감사흔 일을 즐겁게 생각 흘티이요<독립97.1.26②>.

부류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 (ㄱ). 바싹바싹 즐나미여 가며 기직님도 미고 집신 켜레도 삼아<1908구마검,031>.
- (ㄴ). 틈에 끼워 두엇든 기직도 나려 문지를 툇툇 썩러<1911목단화,113>.
- (ㄷ). 입지를 못 하고 길습하고 기직 미여 손뽀발뽀이 다 달도록<1912현미경,10>.
- (ㄹ). 사랑에서는 기직도 미고 집신도 습으시고<1908은세계,027>.

위의 예에서 원래의 ‘점잔ㅎ-’형은 이 자료에 19회 쓰인 반면에, 여기서 과도교정을 거친 ‘검잔ㅎ-’는 24회 출현하고 있다.³⁵⁾ 그러나 『독립신문』의 간행 연도에 따라서 그 비율은 상이하다. 서재필 박사가 관여한 이 신문의 전반기(1896.4.7.~1898.5.30.)에 ‘검잔ㅎ-’형이 우세하게 쓰인 반면에, 그 후반기(1898.6.2.~1899.12.4.)부터는 오직 ‘점잔ㅎ-’형만이 단독으로 등장하였다.

이 어휘는 이미 『한불저언』(1880:546)에 표제어 ‘점잔타’로 실려 있으며, 원래의 축자적 기본 의미에서부터(non jeune, qui n’agit pas comme un jeune homme), 환유의 과정을 거친 “언행이나 태도가 의젓하고 신중하다”(qui est plus raisonnable que ne comporte son âge ordinairement. Etre grave, posé, digne)와 같은 이차적 의미를 점유하고 있는 다의어로 규정되어 있다.

(13)의 과도 교정형 ‘길거ㅎ-’ 또는 ‘길겁-’(黷)은 ‘즐거ㅎ-’와 ‘즐겁-’에서 전설모음화를 수용한 형태로부터 형성된 경우이다(신중진 2007:8). 그러나 『독립신문』의 언어에서 전설모음화를 반영하는 중간 단계의 ‘질거위’나 ‘질겁-’형은 전연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전설모음화를 수용한 대부분의 ‘질거위’와 ‘질겁-’ 형태들이 실제로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 사용되었으나, 격식체에서는 모두 ‘길거위’와 ‘길겁-’으로 과도교정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 자료에서 과도교정을 거친 ‘길거위’는 31회 출현하는 반면에 보수형 ‘즐거위’는 단지 4회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길겁-’의 활용형은 여기서 18회 사용되었지만, 원래의 ‘즐겁-’의 경우는 그보다 더 적은 14회에 한정되었다. 위에서 언급되었던 과도 교정형 ‘길쌈’(紡績)이나 ‘기직’(齒) 부류 역시 원래의 형태보다 당시의 화자들 사이에서 그 사용 빈도가 원래의 형태를 능가함에 따라서 보수형과 개신형 간의 공시적 변이에서 먼저 유리한 고지에 이른 것이다. 중부방언에 등장하였던 ‘길겁-’과 같은 과도교정은 역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도 쉽

35) 신중진(2007:20)은 『독립신문』에 나타난 당시의 언어적 특성을 고찰하면서, ‘검잔ㅎ-’는 원래 한자어 ‘兼全ㅎ-’에서 어근이 변음되면서 형성된 어휘로 추정하였다.

게 관찰된다.

- (14). 종일 길기다가(적성,하.17ㄱ), 길거운 마음(적성,하.1ㄱ),
 엇지 길겁지 안이흐며(화룡, 47ㄱ), 길겁고 조흔 일(수절가,하.22ㄴ).
 cf. 질기시니(삼국지 3.5ㄱ), 여군동낙 질길 적의(화룡,47ㄴ).

4. 19세기 후기 전라 방언어휘들의 고유한 발달과 i∞u의 모음 대응과 관련된 과도교정

4.1. ‘모시(苧)∞모수’의 공시적 대응과 과도교정

현대 전남과 전북의 지역방언에서 표준어 ‘모시’(苧)에 대한 방언형 ‘모수’가 아래의 구술 자료(『한국구비문학대계』5-7,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3))에서와 같이 주로 토박이 노년층 화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아래의 (15)ㄴ과 ㄷ의 예는 동일한 화자의 구술 가운데 규범형 ‘모시’와 지역 방언형 ‘모수’의 두 가지 이형태가 말의 상황에 따라서 교체되어 등장하고 있음을 보인다.³⁶⁾

- (15)ㄱ. 아, 어떤 영갸미 그 전에 모수를 헐 때, 아이, 느닷없이 머누리가 모수를 팔러 장으 간다네. 모수, 그전에 모수 있잖은가? 아, 모수를 팔러 인자 장으를 나갔어. (정읍군 산내면 설화 24:739, 홍일남씨(男) 78세).
- ㄴ. 내가 이따 모시 팔러 보냈은게… 모시값 받을라고 갔더니(상동. 산내면 설화 24:741),
- ㄷ. 모수 값을 챙겨가지고… 술부텨m 한잔 먹으라고. 그 모시값을 준게 (상동. 산내면 설화 24:742).

현대국어의 표준말 ‘모시’(苧)의 역사적 선행어는 역시 ‘모시’로 소급되

36) 지금까지 간행된 방언사전이나 방언자료집 등에서 표준어 ‘모시’(苧)에 대한 지역 방언형이 조사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모시’의 방언형 ‘모수’가 격식을 차린 방언조사라는 면담의 상황에서 좀처럼 출현하지 않고, 일상적인 화용론적 상황에서 화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말한다.

기 때문에, 전북의 방언형 ‘모수’는 통상적으로 ‘모시>모수’와 같은 변화의 방향을 수용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변화를 이루는 과정과 원리가 순수한 음운론적 층위에서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어떠한 조음음성적 요인이 비어두음질의 모음 i를 u로 전환시킬 수 있었는가를 보편성이 있는 공시적 규칙으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유한 남부 방언형 ‘모수’의 형성에 특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공시적 방언형 ‘모수’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수형 ‘모시’에 첫째 음절의 원순모음 ‘오’가 동화주가 되어 뒤따르는 ‘이’ 모음을 원순화 하였다고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원순모음화에 의한 i>u의 변화 방향은 근대와 현대 지역방언의 모음체계에서 계열과 서열 중심으로 한 단계씩 이동해 갈수 있는 구조적 원리에 비추어 배제된다. 따라서 중세국어의 기원적인 형태 ‘모시’^(孝)에서 출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오늘날의 ‘모수’형의 형성은 공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남부 방언형 ‘모수’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이들 자료에서 ‘모수’형은 규범적인 ‘모시’와 공존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출현 빈도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방각 완판본과 필사본 계열에 상관 없이 등장하고 있다.

- (16) ㄱ. 한산 모수 상침바지(박순호 소장 99장본 춘향가, 3ㄴ),
 ㄴ. 당 모수 상침바지, 진한 모수 통형견(장자백 창본 춘향가, 2ㄴ),
 ㄷ. 물식 진한 모수 철육, 빅쥬전디 고를 느려 띠고(수절가, 하.3ㄱ).
 cf. 한산 모시 청도포의(완판 26장본 별춘향전 1ㄴ).

위의 예들은 현대 남부방언에 출현하는 ‘모시^o모수’와 같은 변이가 공시적인 관찰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현대 표준어 ‘모시’와 지역 방언형 ‘모수’의 체언 어간말 위치에 나타나는 i^ou와 같은 모음 대응이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 반영된 일련의 다른 어휘 부류에서도 관찰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요기(요기)^o요구’^(療飢)와 ‘(문)고리^o(문)고

루'環) 등과 같은 어휘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다.

- (17) ㄱ. 요구 ㅎ읍소서(병오, 춘, 28ㄴ; 수절가, 하, 32ㄱ),
황문관에 얼요구 시겨보자(판, 적, 502),
cf. 요귀을 청히니(조웅, 1.12ㄱ),
ㄴ. 문고루난 달낭달낭(수절가, 상, 27ㄱ).

그러나 (16)에서의 '모시^ㅅ모수'의 모음 대응과, (17)의 '요기^ㅅ요구' (療飢) 부류의 비어두 음절 위치에서 이루어진 모음 대응은 역사음운론의 관점에서 그 형성 과정의 성격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즉, 후자의 경우는 중세국어 단계에서 '요기'와 '골회'에서부터 중부와 전라방언에서 각각 고유하게 수행된 음운변화의 과정을 밟아서 19세기 후기와 같은 i^ㅅu의 대응이 표면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중부방언에서 '요기'는 비어두음절 위치에서 '의>이'의 단모음화를 거쳐 온 형태이다. 그 반면에, 전라방언의 '요구'는 후기 근대국어 당시에 남부지역에서 먼저 기원된 원순모음화 현상을 수용하여 '요기>요귀'의 단계를 거치고, 이어서 일반적인 y 탈락 (-uy>u)과 같은 규칙적인 음성변화를 밟아온 것이다.

(17)ㄴ에서 '(문)고리^ㅅ(문)고루'環)의 공시적 대응도 중세국어 단계의 '골회'에서 출발하여 지역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발달의 과정을 밟아 온 표면적인 모습이다. 중부방언에서 '고리'형은 '골회>골휘(비원순화)>골의(h 탈락)>고리(단모음화)와 같은 진로를 취했다. 고리, 環(Underwood의『한영즈던』1890:67). 전라방언에서 '고루'형은 '골회>골휘(모음상승)>골위(h 탈락)>고루(y 탈락)과 같은 일련의 변화를 거쳐 왔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 '요기(요귀)^ㅅ요구'療飢)와 '(문)고리^ㅅ(문)고루'環) 등과 거의 동일한 통시적 변화의 통로를 거쳐 온 예들로, '조기^ㅅ조구(石首魚), (물)동이^ㅅ동우(盆), 모기^ㅅ모구(蚊), 호기^ㅅ호구(好氣)'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18) ㄱ. 칠손 조구 겁질 백겨(<조귀, 판, 박, 358),

- ㄴ. 방성 휘장 모귀장과(<모귀, 판,박.378),
- ㄷ. 정화수 한 동우(<동희,수절가,하.30ㄴ), 금동우에 술은(수절가, 하.37ㄱ),
cf. 동의를 여푸 찌고(충열,상.19ㄴ),
- ㄹ. 서리 중방 호구 잇게 니려온다(호괴, 장자백 창본 춘향가 47ㄴ).

그러나 19세기 후기의 ‘모수’형의 경우는 중세국어 ‘모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위의 (18)의 예들이 거쳐 온 과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중류계층 화자들이 일련의 어휘 부류에 나타나는 규범적인 형태들의 음절말 위치의 ‘-이’형과 토착 방언형에서의 ‘-우’와의 모음 대응을 인지하였으며, 동시에 각각의 형태들에 부여된 사회언어학적 평가를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기로 한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16)에서의 표준어 ‘모시’(苧)에 대한 19세기 후기 전라 방언형 ‘모수’의 형성 동기는 당시의 방언 화자들이 취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회언어학적 태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는 19세기 전라방언의 화자들이 규범적인 중부방언의 형태 ‘모시’를 당시 이 지역에서 토착 방언형으로 쓰이는 ‘고루(고리), 요구(요기)’ 또는 ‘나부(나비), 거무(거미), 동우(동이)’ 등의 체언 어간말 ‘-우’형에 맞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잘못 교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교정은 토착어에 대한 일종의 금지 또는 내적 집단으로의 소속감과 유대성, 즉 내적으로 은밀한 권위를 표출시키려는 의도에서 지역 방언형을 의식적으로 과도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과도 방언형’(hyperdialectalism)에 해당된다.³⁷⁾ 그러나 글쓴이는 이 시기에 ‘모수’(苧)형의 형성이 토착어를 과도하게 표출시킬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결과된 것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까지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 추출된 다양한 성격의 과도 교정들의 대부분이 서울말 중심의 규범어로의 지향에 근거하고 있음이 파악되었기 때문이다(최전승 1987).

37) 과도교정의 유형 가운데 ‘과도 방언형’(hyperdialectalism)에 대한 Peter Trudgill의 설명은 Hock, H. H. & Brian D. Joseph.(1996:187-188)을 참조.

다른 한 가지의 가능성은 ‘모수’형의 출현을 당시의 전라방언 화자들이 외적인 권위, 즉 표준어의 규범을 지향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과도교정(hyperurbanism)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과도교정의 기준은 위의 (18)의 모음 대응 예들과 다른 유형의 것이다. 즉,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화자들은 이번에는 체언의 음절말 위치에서 중부방언 중심의 표준어 ‘-우’형(국수, 장수, 하루, 가루, 마루)에 대해서 지역 토착어 ‘-이’형(국시, 장시, 하리, 나리, 가리, 마리, 등등)이 상호 대응되고 있었음을 인지하였을 것이다.³⁸⁾ 원래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과도교정이 수행되는 구조적 과정이 심리적으로 전통적인 유추의 비례식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일찍이 Herman Paul(1886/1960:414-415)이 지적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과도교정은 유추에 근거한 비례식이 갖고 있는 유효성을 잘못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과오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Herman Paul의 관찰을 최근에 Hock(1991:205), 그리고 Hock & Joseph.(1996:187)에서 과도교정에 근거한 비례식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비례식을 음절말 위치에 대응되는 토착어 ‘-이’형과 표준어 ‘-우’형에 비추어 ‘모수’형의 형성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 하리(一日), 시리(蒸), 국시(麵), 장시(商人): 하루, 시루, 국수, 장수
모시(苧) : X=모수

이와 같은 유추에 의한 비례식에서 과도교정으로 형성된 ‘모수’형이 표준어 지향하기를 시도하는 어느 개인어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와 비슷한 사회언어학적 동기를 갖고 있는 다른 화자들로 모방되어 사회 구성원들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모수’형은 완판본 고소설 계열과 그 시대적 정신과 배경을 달리하는 전형적인 경전류

38) 지역 토착어 ‘-이’형(국시, 장시, 하리, 나리, 가리, 마리, 등등)이 남부방언 등지에서 발달된 형태론적 특징, 즉 평가접미사 ‘-이’의 연결에 의한 중세국어 이후 역사적 발달 과정에 의한 형성임은 최전승(1983)을 참조.

의 간본 자료에서도 출현하였다. 중간본 『여사서언해』(1907)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 가운데 글쓴이가 여기서 주로 취급하는 완판본 고소설과 판소리 사설집 계열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다. 그러나 이 자료는 20세기 초반 전남 고흥(瀛洲)에서 간행된 것으로, 19세기 후기 또는 20세기 초반의 전라방언을 풍부하게 반영하고 있다(최전승 2004). 따라서 중간본 『여사서언해』(1907)에 나타난 언어는 통상적인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의 그것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본 『여사서언해』의 자료에 (16)의 예들과 같은 ‘모슈’형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 (20)ㄱ. 가는 베는 통의 되려 조밀흔 비단과 모슈와 칩을 짜기를(중간 여사서, 3.6ㄱ),
 cf. ㄴ는 뵈는 筒의 들며 綱와 絹과 芻와 葛을 織造히기을(초간, 2.4ㄴ),
 삼을 삼고 모슈를 이으되(중간 여사서, 3.5ㄴ),
 모슈를 이으며(중간 여사서, 3.20ㄱ).

또한, 전형적인 방언형 ‘모슈’는 19세기 후기 당시 서민들이 구사하는 일상적인 기본어휘에 속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이 과도 교정형은 전남지역의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고문서 간찰류」에서 나온 1886년대 및 그 후대의 한글 편지 가운데에서도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모시’에서 과도교정을 거친 ‘모슈’형이 19세기 후기를 전후한 단계에서 당시의 방언화자들의 여러 계층으로 폭넓게 확대되어 현대 전라방언에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 (21)ㄴ. 모슈뵈 네 즈 보너니(언니→아우, 海尹 MF35-3208-626, p.118),³⁹⁾
 모슈뵈 슈무 즈 잇는 것(외사촌 아우→외사촌 형, 海尹

39)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고문서 간찰류」의 한글 편지는 『조선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태학사)를 이용하였다.

4.2. ‘낙시(釣)∞낙수’의 공시적 대응과 과도교정

위에서 언급한 ‘모시∞모수’(芻)에서와 동일한 모음 대응이 기원이 전혀 상이한 또 다른 형태 ‘낙시∞낙수’(釣)에서도 나타난다. 현대 전북방언에 ‘낙시’(釣)에 대한 지역 방언형으로 ‘낙수’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리하여 토박이 전북방언 화자의 구술 자료 가운데 토착어 ‘낙수’(a)와 표준어 ‘낙시’(b)형이 다음과 같이 번갈아 교체되어 등장하고 있다.⁴⁰⁾

(22) ㄱ. 옛날에 나무장사가 하나 있는데... 그 낙수질(a)을 좋아라고 해. 낙시질(b)을 꼭 좋아해서 하리(ㄱ)는, 하루(ㄴ)는 비도 부실부실오고 온게... 기왕이면 낙수질(a)이나 가야겠다 허고 낙시(b)를 가서 낙시질(b)을 허고 앉았는데... 잉어가 큰(큰 소리로 구술) 집더미만한 잉어가 낙수(a)에 가 걸렸어.

ㄴ. 그래 한 며칠 지내고... 그래서 또 낙수질을 갔어. 낙수질을 간게 잉어가 나왔네. 그잉어가(청중: 그 놈이?), 응. 그 낙수대 밑에 와서.

(『한국구비문학대계』5-2, 전북 전주. 완주군 편, 전주 동완산동 설화 12, p.102-3, 박길자(女) 73세).

위의 구술에서 방언 화자는 외래객인 자료 조사자와 동향인인 동네 청중들에 둘러 싸여서 자신의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야기의 초입에서 표준어와 방언형이 교체되는 현상은 ‘하리’(一日)형이 이어서 ‘하루’로 대체되는 상황에서도 관찰된다. 전남과 전북의 지역방언에서 이와 같은 체언어간말 모음이 표준어 ‘-이’와 지역 방언형 ‘-우’로 대응하는 유형들이 ‘모수’와 ‘낙수’ 이외에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홍시∞홍수(紅柿), 갈키∞갈쿠(鈎), 미시∞미수, 수제비∞수저부, 딸기∞딸구(莓), 시래기∞시라구’(최전승 1986:260-262).⁴¹⁾

40) 이기갑 외(1997:100)에 따르면, 전남방언의 대부분 지역에 ‘낙수, 낙수질, 낙수테, 낙수밭’ 등이 ‘낙시’형과 더불어 분포되어 있다.

41) 최학근(1990:1120)에 따르면, 방언형 ‘홍수’는 충북과 경북방언 일대를 포함하여, 주로 전북 지역의 대부분의 하위방언(이리, 군산, 김제, 부안, 임실, 정읍, 남원, 익산)에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 ‘미시(가루)〰미수(麩)’의 공시적 대응은 표준어 선정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 있는 어휘사를 보여준다. 중세국어의 단계에서 이 어휘는 ‘미시’로 쓰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근대국어에까지 다른 변함이 없이 지속되었다(남광우 1997:612). 그러나 19세기 후반의 서울 중심의 중부방언을 대표하는 『한불조언』(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1880)에서 ‘미시’형은 표제어로 제외된 반면에, 오직 ‘미슈’형만이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 미슈, mi-syou, 蜜水, Eau demiel(p.241).⁴²⁾ 18세기 문헌어에 이르기까지 오직 ‘미시’형이 지속되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19세기 후기를 전후한 어느 단계에서 ‘미수’형이 출현하여 어떤 이유로 그 당시 대중 화자들의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미시>미수’와 같은 음성변화는 역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미수(麩)’형은 위에서 나부방언의 ‘모수(茅)’형의 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추정한, 유추에 의한 비례식 (19)와 같은 과정을 거친 과도 교정형으로 보인다. 외국 선교사들이 편집한 계통의 사전 부류에서 이 ‘미수’형이 꾸준히 표제어로 출현하고 있는 사실은 19세기 후기에 중부방언에서 전통적인 ‘미시’의 쓰임에 비하여 개신형 ‘미수’의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반증한다. 이것은 지역 방언형의 신분으로 출발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던 ‘미수’형이 19세기 후기에는 이미 중부 지역의 일상어에까지 그 사용 영역을 확장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역의 말에서 격식체의 규범은 여전히 ‘미시’이었을 것이다. 1920년대 『조선어사전』(총독부 편, 1920:345)에 선정된 단독 표제어는 역시 보수적인 ‘미시’형이었다. 1936년 조선어학회(한글학회)에서 설정한 『사정한 표준말 모음』에서 ‘미시〰미수’ 사용에 대한

42) 사전의 표제어로 ‘미슈’만 선정된 『한불조언』(1880)의 전통은 그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이 작성한 일련의 『한영조언』들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밀슈, 蜜水, honey-water(a summer drink, Underwood(1890:81),

미슈, 蜜水(청밀-밀), (물-슈), Gale(1897:330),

여기서 사전의 표제어 가운데 한자어 ‘蜜水’가 주목된다. 그것은 ‘미수’형이 후시 한자음 ‘밀슈’에서 온 것으로 ㄹ이 탈락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방언형에서도 ‘밀수가리’(경남:진주, 하동), ‘밀쉬’(함남:정평, 신흥) 등이 사용되고 있다(최학근 1990:706).

구체적인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미수’형에 대한 20세기 초엽에 있었던 이른 언급은 1940년대 『큰사전』(1947: 1161, 학글학회)에서인데, 여기서 비표준어의 신분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의 서울말을 포함한 중부방언에서 전통적인 보수형 ‘미시’의 출현 빈도수는 개신형 ‘미수’형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표준어 규정」제11항에서 익은말 ‘미수’는 새로운 표준어로 선정된 반면에, 종래에 위신을 누리던 ‘미시’형은 비표준어로 격하되면서 그 입장이 완전히 바뀌지게 되었다.⁴³⁾

여기서 논의될 지역 방언형 ‘낙수’(釣)는 오늘날 표준어로 선정된 ‘미수’(麩)와 같은 대열에 합류하지는 못했으나,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규범적인 형태인 ‘낙시’와 일종의 공시적 변이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22)의 예문에서 보았던 현대 전북방언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 (23) ㄱ. 추동강 칠이탄의 낙슈줄 던진 경(수절가,상.22ㄱ),
 추동강 칠이탄의 낙수빈가(화룡.54ㄱ),
 고든 낙슈 물리 녀코(완판 29장본 별춘향전, 29ㄴ),
 낙슈질 안저할계(판,박.330),
 cf. 낙기질 안저 흘제(성두본B.판,박.4ㄴ).
 ㄴ. 낙시줄 던진 경(병오,춘.6ㄱ), 낙시밥을 물어짜가(판,퇴.268),
 낙시밥을 삼아(삼국 3.2ㄴ), 낙시밥을 지여(동.3.2ㄴ),
 낙시비 비겨 안저(29장본 별춘.8ㄱ),
 낙디로 달 건지랴(병오,춘.5ㄱ).

위의 예에 등장하는 ‘낙시↔낙수’의 공시적 변이 현상은 19세기 후기

43) 현행 「표준어 규정」 제11항은 그 동안 일어난 “모음의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설정하였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포함되는 단어를 가운데 ‘상추’(비표준어: 상치), ‘지루하다’(비표준어: 지리하다), ‘튀기’(비표준어: 트기) 등은 서울말에서 모음의 변화가 직접 수행된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이 형태들은 19세기 후기 이전의 단계에서 남부방언에서부터 형성되어 중부방언으로 점진적으로 세력을 얻어 확대되어간 방언형들이다.

전라방언에서도 말이 쓰이는 상황과, 화자들이 구사하는 말의 스타일에 따라서 일정하게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낙시’형은 그 당시에도 규범 형태이면서 긍정적인 사회 상징 가치와 위신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 반면에, 전형적인 토속 방언형 ‘낙수’는 낮은 가치를 갖고 있는 대신에 일상성과 친밀성, 또는 일정한 지역사회와 그 계층에 속하는 방언 화자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지(marker) 또는 내재적 위신을 표출 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였을 개연성도 제외할 수 없다. 그러나 위의 (23)의 예들을 관찰하면, ‘낙수’의 출현은 위에서 제시된 과도 교정형 ‘모수’(茅)에서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19세기 후기 정음방언을 반영하는 필사본 『蘊各書錄』(1890)에도 ‘낙수’형이 등록되어 있다(전광현 1983:187). 그리하여 이 방언형은 사용되는 분포가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1940년대의 함경북도 정평방언에서 ‘낙수’형과 연관되어 있는 ‘낙쉬’(『한글』, 제5권 1호, p.20)형이 보고되어 있다. 이 방언형 ‘낙쉬’는 ‘낙수’에 평가접미사 ‘-이’가 연결된 형태로 분석될 수 있다.⁴⁴⁾ 이 당시의 함경도 방언에서 역시 ‘낙수’형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시→낙수(함남 고원, 『한글』, 제6권 2호, p.19). 또한, ‘낙수’는 19세기 후기와 오늘날의 경상도 방언 일대에도 분포되어 있다. (ㄱ) 낙시→낙수(경북 대구, 『한글』, 제5권 5호, p.23), (ㄴ) 솟 본 나무와 낙수 문 고기(필사본, 수경옥낭좌전 9ㄴ).

표준형과 방언형 간에 둘째 음절의 위치에서 i^ou와 같은 대응을 보이는 다른 부류의 형태들을 포함해서, ‘낙시→낙수’의 과정이 수행된 원인을 음성적 층위에서 합리적으로 추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은 서울말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방언과의 접촉에서 형성된 과도교정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오늘날의 전라방언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비어두음절 위치에서 i(뫼시)u(뫼수) 대응의 예가 19세기 후기의 일부 필사본에 출현하고 있다. 통상적인 ‘뫼시’와 대응되는 ‘뫼수’형의

44) ‘미수’(麩)의 경우에도 19세기 후기 함북방언을 반영하는 Putschillo의 『로한즈던』(1874)에서 접미사 ‘-이’가 연결된 ‘미쉬’(p.233)형이 표제어로 실려 있다. 이러한 반사체는 20세기 초엽 小倉進平(1944:166)에서 함남과 함북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수집되어 있다. [mi-sui]: 【함남】 함흥 외 5개 지역, 【함북】 성진, 길주.

형성은 역시 ‘뉘시→낙수’와 동일한 기제에 근거한 과도교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한다.

- (24)ㄱ. 뉘슈 잇난 저 방즈…뉘슈 잇게 줄나 미고(장자백 창본 춘향가,5ㄴ),
 가진 미답 뉘슈 잇께 느리 씨고(상동.30ㄱ),
 어스 뉘슈 치릴 적의(상동.47ㄴ).
 ㄴ. 뉘시 잇난 방지(수절가,상.10ㄱ), 뉘시 잇게 뛰여 츠고(병오,춘.14ㄱ),
 뉘씨 잇는 저 방자놈(박순호본 99장 춘향가, 7ㄴ),
 어스 뉘시를 칠일 제(상동.69ㄱ).

4.3. ‘씩(帶)〇썩’의 공시적 대응과 내재적 권위에 의한 과도교정

현대 표준어 ‘(허리)띠’는 중세국어의 ‘씩(帶)’에서부터 규칙적인 음성변화를 거친 반사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1940년대의 전형적인 지역방언이 수록된 小倉進平(1944:159)에서 이 어휘는 ‘허리’와 합성되어 많은 지역에서 [həri-ˈtiy]로 쓰인다고 조사되어 있다. 따라서 1940년대의 방언형 ‘허리띠’는 이 시기의 지역방언들에서 특정한 자음, 즉 치조폐쇄음 ‘ㄷ’ 계열 뒤에서 최후까지 이중모음 [iy]가 존속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사실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한다.⁴⁵⁾

그러나 1930년대 전남 함평방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전문가의 방언

45)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 하향성 이중모음 ‘의’는 ‘으’ 또는 ‘이’로 단모음화를 보여주지만, 특히 치조폐쇄음 ‘ㄷ’ 계열 앞에서는 어휘형태소나 문법형태소에서 일관되게 [iy]로 유지되어 있음이 특징이다(최전승 1986). 말 한 마디여(수절가, 상.6ㄴ), 발 압부리를 디디고(판, 변.556), 디디여 죽기더라(초한, 하.44ㄱ), 예단을 디리고(초한, 상.10ㄱ), 어미 널퍽(수절가, 하.24ㄱ) 등등.

그 반면에, 19세기 후기 평안방언에서는 ‘ㄷ’ 계열 앞에서도 이중모음 ‘의’는 이미 단모음화(i y>)를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거의 동일한 시기의 상이한 지역어에서 출현하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의 이러한 진행 속도에서의 차이가 실제 언어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의 현실이 반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지 아직 판단할 수는 없다.

(ㄱ) 썩를 씨고 나를 성기다가(초역,누가 17:8), 썩를 묵고(초역, 누가 12:35), (ㄴ) 절머실 썩에 스사로 썩를 씨고(예수성교,요안 21:18), 디디여(예수성교, 데자항적 27:40), 드디여(요안니 6:24), (ㄷ) 수리를 타고, 수리 것틀, 수리를 홉띠 타니(車, 술위>수리>수리, 예수성교 데자항적 8:28, 8:29).

조사(1936, 『한글』 4권 3호, pp.11-16, 이강수 씨의 조사)에서 표준어 ‘띠’에 대한 남부 방언형 ‘뽀’가 관찰된 바 있다(p.13). 또한, 『천자문 자료집』(지방 천자문 편, 1995:245)에서 전남 담양과 곡성지역을 중심으로 ‘帶’에 대한 전통적인 새김으로 ‘뽀’가 등장하였다. 따라서 규범적인 ‘띠’와 대립되는 방언형 ‘뽀’의 발달은 상당한 시간 심층으로 소급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이루어진 최학근(1990:1023)과 『한국방언자료집』(전북편, 67쪽; 전남편, 90쪽)에는 ‘(허리)뽀’형이 주로 전남과 전북지역에 부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지역 방언형 ‘뽀’(帶)는 노년층 토박이 방언화자에 한정된 고유한 방언 형태이며, 무단히 진행되는 방언의 수평화(dialect leveling) 과정을 거쳐 표준어 ‘띠’형으로 점진적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표준형 ‘띠’와 방언형 ‘뽀’에서 ‘이∞위’와 같은 모음 대응이 추출된다. 이러한 모음의 대응은 표준형을 기준으로 지역방언에서 i>ü와 같은 모음의 변화가 현대국어 이전의 역사적 단계에서 일어났음을 가정하게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음운변화를 일으키는 음운론적 조건을 표면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렵다. 표준형 ‘띠’에서 앞선 치조폐쇄음 ‘ㄷ’ 계열이 i를 ü로 원순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음성적 계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이러한 음성변화를 국어 방언사에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i>ü의 모음변화에서 어떤 보편적인 규칙성이나, 변화 방향의 자연성을 찾을 수 없다.⁴⁶⁾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표준어 ‘띠’와 지역 방언형 ‘뽀’에서 추출하였던 모음 대응 i∞ü는 한 세기 이전의 역사적 단계로 소급하면 iy∞uy와 같은 대응으로 전환된다. 방언형으로 ‘뽀’(帶)가 이미 19세기 후기의 단계에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형태의 모음 대응은 원래 iy∞uy에서 각각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은 i∞ü의 방향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46) 백두현(1988:100)은 “영남 삼강록의 음운론적 연구”(『용언어문논집』 4)에서 취급하는 자료에 변이의 형식으로 출현하는 ‘찌(帶, 1.10ㄴ)∞뽀(6.22ㄱ)’의 예를 표기상의 문제로 인식하고, 여기서 ‘찌’를 ‘뽀’로 표기한 것은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던 비원순화 uy>iy에 대한 유추적 표기로 설명한 바 있다.

- (25) ㄱ. 허리썩, 부납썩을 놀너 썩고(박순호 소장 99장본 춘향가.3ㄴ),
 열두 도막 이신 썩로 흥복을 놀너 썩고(동.69ㄴ),
 유문황나 허리썩의(동.44ㄱ), 남전디 썩 썩고(동.44ㄴ),
 통요디 허리썩의(동.44ㄴ), 흥광디 부납썩을 흥중의 놀너 썩고
 (동.45ㄱ),
 궁초 썩을 흥중의 너짓 미고(필사본, 성열전, 별춘향전 이본, 6ㄱ),
 cf. 황금 썩을 썩여(필사본 옹고집전, 368),
 허리에 옥디을 썩고(필사본 수경옥낭좌전, 35ㄴ).⁴⁷⁾
- ㄴ. 영초단 허리썩(수절가,상.5ㄴ), 흑사 썩를 흥중의 놀너미고(수절
 가,상.5ㄴ),
 세초 썩을 놀너 썩고(완판 26장본 별춘향전 1ㄴ),
 남전디 썩를 썩고(33장본 병오.춘.14ㄱ), 흥궁단 썩를 썩고(병오,
 춘.14ㄱ),
 장삼 실썩 달인 치(완판본 41장본 무술본 심청,12ㄱ).

위의 예에서 당시의 규범형 ‘썩’와 개신형 ‘썩’의 출현은 방언자료의 유형에 따라서 상보적 분포를 나타낸다. 즉, 완판 방각본 고소설 계열에는 주로 ‘썩’형이 사용된 반면에, 필사본 부류 등에는 ‘썩’형이 일반적이다.⁴⁸⁾ 그리하여 완판 29장본 『별춘향전』에서 인용한 일부 구절과, 김일근 소장 필사본 『성열전』에서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이 ‘썩’의 대응을 보인다. 방언 칠레 불작성면, 청능화 도벽의 황능화 썩을 썩고 황능화 도벽의 청능화 썩을 썩고(29장본 별춘.7ㄴ)○방언 칠레 불작성면, 천능화 도벽의 황능화 썩을 썩고, 황능화 도벽의 청능화 썩을 썩고(성열전 6ㄱ).

방언형 ‘썩’을 반영하는 필사본 『성열전』자체에서도 위의 예문에서 ‘썩

47) 『필사본 수경옥낭좌전』은 19세기 또는 20세기 초반의 경상방언을 반영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경상도 지역방언 일부에서도 ‘썩’(대)형이 확대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 출현하고 있는 예들에서도 확인된다.

(ㄱ) 디룡이는 제 눈을 가제 주고 뽕를 밧고와 뽕다 흥읍니(小倉本 교린수지 2.18ㄱ),
 = 썩를 밧구어 뽕다 허읍데(1881년, 초간. 교린수지 2.13ㄴ),
 (ㄴ) 썩 대(帶, 通學徑編, 상. 10ㄱ).

48) 그러나 19세기 후기의 전라 방언적 요소를 풍부하게 반영하는 임형택 소장 26장본 『박홍보전』에는 규범적인 형태 ‘썩’형이 등장하였다.
 누비 장삼의 실썩 썩고(12ㄱ).

ㄹ'의 변이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밖에, 장가백 창본을 위시한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에서도 ‘ㅅ’형이 주로 등장하였으나, 필사본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것은 ‘ㅅ’형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 (26) ㄱ. 도포 초록 슈실 ㅅ를 ㅅ를 놀너 ㅅ시 잇게 ㅅ고(신재효가장본, 판. 춘. 4)ㄹ
도포 초록 수실 활입 ㅅ를 ㅅ시 잇게 놀너 ㅅ고(가람본, 춘. 남. 2)ㄹ,
ㄴ. 흰 ㅅ로 집이엿다(판. 춘. 14)ㄹ 흰 ㅅ로 집이엿다(가람본, 춘. 남. 9)ㄱ,
ㄷ. ㅅ라 더린 중추막의 목부납을 놀너 ㅅ고(판. 춘. 56)ㄹ ㅅ라 더린 중추
막의 목부납을 놀너 ㅅ고(가람본, 춘. 남. 33)ㄱ.⁴⁹⁾

이와 같이 교체된 예들을 보면,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체에서 개신형 ‘ㅅ’형과 규범형 ‘ㅅ’형은 방언 화자들의 언어사용 의식과, 말이 쓰이는 상이한 상황 등에 따라서 선택되는 사회언어학적 변이를 부단히 나타내었을 가능성이 크다. 19세기 후기의 경판본 고소설 자료에서는 ‘ㅅ’형만이 사용되었음이 물론이다. 그리하여 대략 1860년대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판 20장본 『홍부전』과, 이 판본을 모본으로 하여 필사하였다고 하는 김문기 소장 26장본 필사본 『홍보전』 두 이본 사이에는 현저한 언어적 차이가 개재되어 있다.⁵⁰⁾ 이 가운데 한 가지는 경판본의 ‘ㅅ’가 19세기

49) 신재효가 개작한 동일한 판소리 사설이지만, 필사된 이본들 가운데에는 방언 의식에 따른 당시의 방언형 실현의 정도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언어적 차이는 말의 격식체와 비격식체 사용에 따른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의 공식적 변이를 형성하였을 개연성이 많다.

신재효 가장본 『춘향가』(남창)와 가람본을 일부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예문 전반부는 신재효 가장본 『춘향가』(남창)에서, 그리고 후반부는 가람본에서 추출하였다.

(ㄱ). 왜목으로 눈 ㄱ리니(판. 춘. 42)=왜목 틀어 눈 ㄱ리니(가람 25)ㄹ,
(ㄴ). 손가락을 ㅅ입이 너코(판. 춘. 18)=손가락을 ㅅ입의 너코(가람 11)ㄱ,
(ㄷ). 한췌췌 병의 너코 유지의 ㅅ 모른 안췌(寒燒酒, 판. 춘. 26)=한췌췌 병의 너코 유지로 ㅅ 모른 안췌(가람 16)ㄱ,
(ㄹ) 어스또는 ㅅ출두호자 차비를 ㅅ리니디(판. 춘. 86)=어스또는 ㅅ출호호자 차비를 ㅅ리니디(가람 51)ㄱ,
(ㄷ) 장지 들기 가망 업서 외지로 상도호고...더릴스회 노릇호며(판. 춘. 68)
=외지로 상투호고...데일스회 노릇호며(가람 40)ㄱ.

50)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을 반영하는 20장 경판본과, 이와 비슷한 이 경판본을 모본으로 필사

후기 전라방언의 특질을 반영하는 이 필사본에서는 ‘썩’로 전환되어 있는 것이다. 썩히는 더 허리썩 큰코 다라나기(경판 20장본 흥부전 16ㄱ)=허리썩 큰코 다라나기(필사 26장본, 흥부전 21ㄱ).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 나타나는 ‘썩’(帶)형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하였던 표준어 중심의 과도교정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방언형 ‘썩’가 중세국어 ‘썩’로부터의 발달일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음운론에서 ‘ㄷ’이 ‘으’를 ‘우’로 원순화시킬 수 있는 음성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그 변화의 과정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몇 가지 대안 가운데 글쓰이는 역시 과도교정의 과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세기 국어에서 비어두음절 위치에 양순음 계열과 연결된 이중모음 [iy]를 보유하고 있었던 일련의 중부방언의 어휘들, 예를 들면 ‘나뵤’(蝶)와 ‘거뵤’(蜘蛛) 등의 부류에 대하여, 남부방언 지역에서는 발달된 원순모음화 현상에 의하여 ‘나뵤’와 ‘거뵤’ 등으로 사용되었을 역사적 단계가 있었다.⁵¹⁾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중부방언의 규범적인 ‘썩’(帶)를

된 26장본『흥부전』간에 드러나는 언어적 차이는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특징적인 방언형 ‘숨폴’(林)에 대하여 경판본은 ‘수폴’로 대응된다.

수폴 님즈 님셔방이오(경판 20장본, 흥부전 16ㄴ)=숨폴 님짜 님셔방인가 부오(26장본 흥부전, 21ㄴ).

51)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 남부지역에서 일찍이 발달된 원순모음화 현상과 관련하여 개재자음으로 순음을 갖고 있는 ‘나뵤(나비), 거뵤(거미), 호뵤(호미), 구뵤(구비), 선뵤(선비), 말뵤(말미), 고부(고비)’ 등의 일련의 어휘에서 중부방언의 표준형 ‘-이’(<의)와 지역 방언형 ‘-우’(<위<의)의 모음 대응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ㄱ. 나뵤을 짜라(정사본 조음 2.32ㄴ), 왕나부(대봉, 상.17ㄴ),
 ㄴ. 거무줄(판, 변.618), ㄷ. 호무 들고(화룡 56ㄴ), cf. 호뵤질(관성계군명성경언해, 12ㄴ).
 ㄹ. 시숙 선부드른(수절가, 상.15ㄱ), 선부의 티(대성, 9ㄱ),
 ㄷ. 구뵤구뵤 집푼 스랑(별춘, 10ㄱ), 구부구부 미친 한(수절가, 하.2ㄴ),
 ㅂ. 고뵤 널길 슈가 업고(판, 변.540), 혼창 조홀 고부여(심청, 하.31ㄴ),
 ㅅ. 말뵤를 청혀여(길동, 18ㄴ), 널로 말무야마(길동, 15ㄴ), 말무를 주는이(풍운, 14ㄱ).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을 대변하는 『독립신문』 등의 언어 자료에 ‘나뵤’>나뵤(蝶), 거뵤’>검뵤(蜘蛛)와 같은 예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원순모음화 현상이 중부방언의 어휘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ㄱ. 나뵤 모양으로<독립97.07.17>, 나뵤는 입술이 가나<독립97.07.17>,
 또 무슴 즐승이 낫나냐 나뵤요. 나뵤도 놀기가 낫시오<독립97.6.17 ②>,
 은으로 몬드러 도금흔 나뵤가 달였다고<독립97.5.23>.

기반으로 남부방언에서 ‘썩’이 유추에 의한 비례식을 거쳐 잘못 형성되었다. 즉,

(27). 나비(蝶), 거미(蜘蛛): 나뭇, 거뭇
썩(대) : X=썩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X=썩’은 결과적으로 지역방언의 특질을 과도하게 표출하려는 의도를 당시의 방언 화자들이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 등장하는 ‘썩’형은 규범적인 형태 ‘썩’형을 회피하고 자신들이 구사하고 있는 토착어에 대한 일종의 내밀한 권위와 유대성에 근거한 ‘밑으로부터의 변화’(change from below)에 의한 변화형일 것이다. 따라서 이 개신형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모수, 낙수’ 등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

즉, ‘썩’형은 표준어 지향의 과도교정(hyperurbanism)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역방언 중심의 과도교정(hyperdialectalism)을 수행한 것이다.

글쓴이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썩(帶)의썩’의 모음 대응의 방향이 위에서 취급되었던 §4.1과 4.2의 ‘모시^o모수’, ‘낙시^o낙수’의 그것과 상이하다. 둘째, 중세국어의 형태 ‘썩’에서 19세기 후기의 단계에서 ‘썩’로의 발달은 원순모음화에 의한 ‘나비>나뭇’(蝶) 계열의 변화 방식과 일치한다. 셋째,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의 유형 가운데, ‘썩’형은 주로 필사본 자료에 한정되어 있으며, 필사본 부류에서도 그 당시의 전형적인 토착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료(예문 26을 참조)에 생산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cf. 나뭇(한불조언, 1880, p.267), 나뭇(蝶, 한어통 1909, p.13),
ㄴ. 김위는 날는 다리는 물것과 비스름 향여<독립97.6.17 ②>,
돌팡이와 박휘와 김위와 질렁이가<독립97.6.17 ①>.
cf. 거뭇(한어통 1909,p.63).

5. 음성변화의 규칙성과 과도교정의 개입

5.1. ‘종조리∞종지리∞종기리∞종도리’(雲雀) 방언형들의 분포와 과도교정

현대국어의 ‘종달새’ 또는 ‘종다리’(雲雀)에 해당되는 중세국어의 선행어는 확인되지 않으며, 비교적 최근 근대국어의 자료에서 ‘종다리’ 계열과 ‘노고지리’ 계열만 관찰될 뿐이다. 오늘날의 지역방언에서도 역시 위의 두 계열이 다양한 변종을 거쳐 분포되어 있다. 1940년대 방언조사에서 小倉進平(1944:281)에는 ‘종달새’형이 전남과 전북의 대부분, 그리고 경상도 방언 등지에서 지역 방언형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 가운데 이 어휘는 주로 ‘종조리’ 형태에서 음운론적 변화 또는 여러 가지의 과도교정을 거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이 어휘의 지역 방언형으로 ‘종조리’와 ‘종지리’의 출현 빈도수가 다른 변이형들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종조리∞종지리’의 공시적 변이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들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⁵²⁾

- (28) ㄱ. 저 종조리시 우름운다(화룡,62ㄴ),
종조리시 열씨 까듯 조랑조란 하라던야(완판 26장본
별춘향전 3ㄱ),
종조리시 열씨 썩듯 다 외야 바치라던야(33장본,병오,춘,3ㄴ),
종조리시 열씨 까듯(장자백 창본. 춘향가, 12;
99장본 박순호본 별춘,8ㄴ).
ㄴ. 내가 너 마를 종지리시 열씨 까듯 하여나부다(수절가,상,10ㄱ),
너다려 종지리시 열씨 까듯(완판 29장본 별춘,4ㄴ),
식벽 종지리 지지 울고(임형택 소장 26장 필사본 박홍보전,25ㄱ).

52) 오늘날의 제주 지역방언에서도 이와 같은 ‘종주리’(<종조리)와 ‘종지리’형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이 방언형들의 분포는 매우 넓었을 것으로 보인다. 종지리-새, 종주리-새(종달새, 현평효 1962:546),

위와 같은 변이에서 (28)ㄱ의 ‘종조리’형이 오늘날의 전북방언에 일반적으로 계승되어 있다. 종조리새<시골말>, 전북 정읍 중심, 『한글』5권 11호, 19쪽, 1937년 백종남 조사보고, 종조리(새): 전북→김제, 부안, 임실, 정읍, 남원(김형규1974:242). 이와 같은 공시적 분포와, 음성변화의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중지리>종조리’의 과정보다는 ‘종조리>중지리’의 변화가 더 자연스럽다. 후자의 변화는 여기에 관여한 몇 단계의 음성변화를 상정하게 된다. 먼저, ‘종조리>종죄리’와 같은 음라우트 현상이 19세기 후기를 전후한 이 방언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중죄리’는 비어두음절 위치에서 ‘외→에’와 같이 비원순화된 다음, 이어서 모음상승을 수용하는 과정(중죄리→중지리)을 밟게 되었을 것이다.⁵³⁾ 오늘날에도 ‘중지리(새),’ 또는 ‘중질새’ 유형이 특히 전 남방언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⁵⁴⁾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 가운데 춘향전 완관본 계열의 이본에는 (28)ㄱ의 예문들이 사용되는 맥락에서 또 다른 변이형인 ‘중기리(시)’가 등장한다. 중기리시 열시 까뚝(완관 30장본, 별춘.5ㄱ). 여기에 반영된 ‘중기리(시)’형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다. 그러나 방언형 ‘중지리’형에서 ‘중지리→중기리’와 같은 통로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여기에 ‘ㄷ’ 구개음화의 관점에서 ‘중기리’는 일종의 과도 교정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 단일형태소 내부에서 ‘ㄷ’ 구개음화와 무관한 ‘지’의 연결이 ‘기’로 잘못 교정된 예는 쉽게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용언어간 ‘지나-’(過) 형태가 ‘기나-’로 과도 교정되어 쓰이는 사례가 드물게 자료상에서 발견된다. 임형택 소장 26장본 『박흥보전』(丙辰九月二十二日 臘)에서 ‘지니→기니-’와 같은 용례가 등장하고 있다.

(29). 십여일 기닌 후의(20ㄴ), 엄동도 다 기니고(22ㄱ), 호강으로 기닌난디

53)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음라우트 현상을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수행된 당시의 음성변화들의 유형은 최전승(1986)을 참조.

54) ㄱ). 종지리새(종달새, 종다리), 『우리 고장 무안의 방언』, 2003:249, 오홍일, 무안군, 무안문화원),

ㄴ). 종질새(『전라도 방언사전』, 주갑동, 수필과 비평사, 2005:302).

(21ㄱ), 곤궁으로 기너더니(22ㄴ), 말만흔 움막집의 기한으로 기닐 적의(24ㄴ).⁵⁵⁾

또한, ‘종기리’형의 후속형이 현대 전남방언 일대에서 수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실제로 쓰였던 과도 교정형 ‘종기리시’의 실체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셈이다. ‘종기리새’(전남 신안), ‘종질새’(전남 화순, 이기갑 외, 1997: 548, 549).⁵⁶⁾

이번에는 방언형 ‘종조리’에 근거한 또 다른 과도 교정형 ‘종도리시’가 이 시기에 위의 (28)ㄱ에서와 동일한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다. 필사본 계열의 춘향전 이본에 출현하는 ‘종도리’의 경우도 ‘종조리’에서부터 ‘ㄷ’ 구개음화와 관련된 일종의 과도교정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종도리시 열씨 까듯 조랑조랑 다 외와 바치라던야(김일근 소장, 성열전 3ㄴ). 19세기 후기 전라방언형 ‘종도리’의 후속형도 오늘날의 전북 방언 일대에서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표기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종도리새(전북: 남원, 최학근 1990: 1288).

55) 이와 같은 ‘지나-’(過)→기나-’를 거친 예들은 19세기 함북방언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아래의 (ㄱ)의 예는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한국어 강사 김병욱이 1898년에 Saint. Petersburg에서 편집하고 간행한 Koreiskie Teksty(한국어 독본)에서, (ㄴ)의 예는 20세기 초엽의 함북 육진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일련의 카잔 자료들에서 추출한 것이다(최전승 2004:615). 소신애(2007:193)는 20세기 초엽 함북방언을 반영하는 러시아 카잔 자료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과도교정을 논의하면서, ‘지나→기나-’의 예들은 ‘디나→지나→기나-’와 같은 변화가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ㄱ) 숨년이 기났도다(19.3), 퉁년이 기노도록(18.3), 이팔 청춘 기나가면(40.5),

(ㄴ) kinan tare(지나 탈애, 소사전.65),

kina gagi(지나가기, 소사전.92),

kina karman hanya?(지나 갈만 하나? 회화 37.218),

kina kanin(지나가는, 회화 21.84).

5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 관찰된 ‘종조리시>종지리시→종기리시’의 유형과는 반대로, 이와 비슷한 시기의 중부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독립신문』(1897.07.08)에서도 역시 같은 성격의 과도교정으로 추정되는 ‘종디리’형이 1회 등장하였다. 풍새와 종디리와 가치와(독립신문 2권 80호, 1면), 여기서 ‘종디리’의 예는 ‘종지리’형에서 t-구개음화 이전의 형태로 잘못 교정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5.2. 과도교정과 음성변화(1): ‘회쥬의효쥬의쇼쥬의쇠쥬’(燒酒)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과도 교정형들 가운데 일부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당시에 생산적으로 수행되는 음성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예들도 보인다(최전승 1986). 따라서 이 방언에서 당시에 수행된 일정한 과도교정의 유형들은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가 아니었음이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이들 형태는 개인 화자의 차원에서 끝나는 잠정적인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정한 세력을 갖고 확산되어 동 시대의 사회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일정한 사회언어학적 근거에 의하여 모방하는 지속적인 경향으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 출현하는 과도 교정형들 가운데, ‘ㅎ’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쇼쥬’(燒酒)에서 출발한 과도 교정형 ‘효쥬’와, 여기서 이중모음의 변화에 해당되는 ‘효>회’에 참여한 ‘회쥬’형이 주목된다. 이 시기의 자료에서 ‘쇼쥬’의 방언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공존하여 일정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되는 공시적 변이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첫째는 아무런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규범적인 ‘쇼쥬’형, 둘째, ‘쇼쥬>쇠쥬’와 같은 당시에 생산적으로 작용하였던 움라우트를 적용시킨 형태, 셋째, 원래의 ‘쇼쥬’로부터 ‘ㅎ’ 구개음화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 잘못된 교정으로 형성된 ‘효쥬’, 끝으로 과도 교정형 ‘효쥬’에서 계속적인 음성변화를 수용하여 ‘효쥬>회쥬’로 전환된 변화형이 그것이다.

(30)ㄱ. 팔팔 썬난 회쥬, 약쥬(수절가,상. 24ㄴ).

ㄴ. 소하반 청시반을 효쥬의 가라 춘향을 먹길 저기(완판 26장본 별춘향전 17ㄱ),

효쥬 곱고 장 다리기(燒酒,판,박.352)의빅쇼쥬(판,퇴.266).

ㄷ. 환쇠쥬 술 타서(완판 29장본 별춘,10ㄴ),

문어 전복 짓되려 환쇠쥬 술물 타서(33장본 병오,춘.11ㄴ),

쇠쥬 일곱잔식 먹여 노앗던니(박순호본 99장본 춘향가, 49ㄱ),

쇠주, 동변, 강집 등물을(판,춘.46).

ㄹ. 남문밖 횡화촌의 소쥬디만 사오너라(판,춘.106),

한쇼쥬 병의 넛코(판,춘.26)〰흔쇠쥬 병의 넛코(가람본, 판,춘.16
ㄱ).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 출현하는 위와 같은 네 가지 방언형 가운데, 오늘날의 여러 지역방언에서 ‘쇠주’가 가장 넓은 분포를 점하고 있다(小倉進平 1944:167-8; 최학근 1990:494-5).

그 반면에, 과도 교정형으로 추정되는 ‘효주’는 오직 전남방언의 일부지역(순천, 담양)에만 한정되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어 있다.⁵⁷⁾ 그러나 19세기 후기의 중부방언 자료에서도 ‘효쥬’형이 출현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이 시기에 이 과도 교정형들의 사용 분포가 현대 지역방언의 경우보다 훨씬 더 넓었을 가능성도 있다. 쇼쥬 ou 효쥬(『한불증언』, p.436).

(30)ㄱ의 ‘회쥬’에 대한 오늘날의 지역방언의 반사체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방언형이 나타나는 완판 84장본 『열여춘향수절가』의 동형이판본인 완서계서포본과 다가서관본에 수정 없이 그대로 반복되어 있는 사실을 보면 표기상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 ‘회쥬’형은 과도교정을 거친 ‘효쥬’(燒酒)에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 주로 한자음에 한정되어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효>회’의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를 적용시킨 것이 분명하다. 이 시기에 ‘효’(孝, 效, 梟, 肴)와 같은 일정한 자음 다음에 통합되는 이중모음 ‘요’가 ‘외’로 바뀌지는 변화의 유형들은 아래와 같다.

(31)ㄱ. 효>회(孝);

불회자(不孝子, 충열, 하.11ㄱ), 회자 열여(孝子, 수절가, 상.1ㄱ),

회녀(孝女, 판, 심.196), 충회록(忠孝錄, 수절가, 상.3ㄱ),

불회막심(불효, 용문, 5ㄴ).

57) 김형규(1982:164)에서는 ‘소주’의 전남 방언형 ‘효주’의 사용지역으로 종전에 보고된 담양, 순천 이외에, 승주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ㄴ. 효>회(效);

빅약이 무회로다(無效, 조응 3.3ㄱ),
고의를 회칙고자(效則, 수절가, 상.23ㄱ).

ㄷ. 효>회(肴);

옥반가회(玉盤佳肴, 판, 춘남, 88), 주회(酒肴, 화룡. 48ㄱ).

ㄹ. 효>회(梟);

회시홍고(梟示, 충열, 하.30ㄱ), 회시훈 후의(초한, 상.40ㄱ),
회시홍여도(병오, 춘.17ㄴ; 별춘 18ㄱ).

또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당대 화자들에게 친숙한 고대소설의 등장인물인 ‘張遼’(장요, 완판본『화룡도』등을 통해서)와 같은 인명에서 한자음 ‘遼’(요)가 ‘회’로 사용된 예들이 확인된다. 장회가(화룡 49ㄴ), 장회로(화룡 79ㄱ), cf. 장효(화룡 83ㄱ), 장요(판,적.490). 이러한 사례를 관찰하면, ‘장요(張遼)>장회’와 같은 불가능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먼저 ‘ㅎ’이 삽입되는 과정이 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⁸⁾ 즉, ‘장요(張遼)→장효>장회’.

5.3. 과도교정과 음성변화(2): ‘포슈∞표슈∞피슈’(砲手)

지금까지 제시한 ‘쇼슈→효슈>회슈’(燒酒), 그리고 ‘장요→장효>장회’ 등과 같은 변화가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 반영된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글쓴이는 판단한다. 이러한 변화형들은 당시의 화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실제의 언어 행위의 결과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을 ‘쇼슈→효슈>회슈’(燒酒)와 같은 진행 방향과 유사한 과정을 보이는 ‘포슈’의 19세기 후기 전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포슈>피슈’와 같은 변화를 보이는 ‘피슈’형의 출현을 말한다. 이 시

58)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는 형태소 내부 모음과 모음 사이에 ‘ㅎ’을 개입시키는 현상이 빈번하게 출현한다(최전승 1986:57-59).

누훤(누의, 완판 구운몽, 하.26ㄴ), 여희주(如意珠, 조응 3.16ㄴ), 고훈 일골(고은, 수절가, 상.5ㄱ), 고훈 머리, 고훈 티도(고은, 수절가, 상.7ㄱ), 크게 우흐며(우으며, 길동 17ㄱ), 셔찰을 셔혀 보니(써여, 적성, 상.36ㄴ), 마홀(마을, 필사본 응고집전, 375).

이와 같은 ‘ㅎ’ 자음 첨가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기의 방언에서 ‘포슈>피슈’와 같은 변화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립될 것 같지 않지만,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피슈’에 대한 현대 지역방언에서의 반사체가 일상적인 구어에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 ‘포수’(砲手)의 방언형으로 아래와 같이 ‘표슈’와 ‘피슈’형이 공시적으로 공존하여 사용되고 있다.

- (32) ㄱ. 좌우의 표수 일시의 총을 노호되(길동, 23ㄱ), 도감 표수 박을(길동, 23ㄱ), 산형기는 표슈 무서워 혈 슈 업고(권영철 소장 필사본 62장본 특기전, 32ㄱ),
 ㄴ. 땡 잡는 피슈 총소리로다(화룡, 69ㄱ)∞ 큰 산중의 포수 하나 썬일소나(화룡, 69ㄴ), 포수에게 총을 팔아(판, 적, 502).

이 시기에 ‘포수>피슈’와 같은 변화는 (32) ㄱ의 예문에 등장하는 ‘표슈’를 중간 단계로 설정하면 가능한 통합적 과정이다. 그렇다면 ‘포수→표슈’의 변화는 통상적인 음성변화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포→표’의 변화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공시적으로 빈번하게 수행되는 단모음화 ‘표→포’의 변화에 대한 반작용, 즉 과도교정을 전제로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일정한 자음 다음에 연결된 y계 상승이중모음 ‘요’는 한편으로 ‘외’의 방향으로 변화를 나타내지만, 다른 한편으로 단순히 y를 탈락시키는 방편으로 단모음화를 수행하였다.⁵⁹⁾

- (33) ㄱ. 표(表)>포(장경, 27ㄱ; 대성, 2ㄱ; 풍운, 11ㄱ),
 표주(瓢舟)>포주(충열, 상. 18ㄴ),
 표연(飄然)>포연(대봉, 상. 14ㄱ),

59) 이와 같은 과도교정의 유형은 비단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다. 일찍이 小倉進平은 『咸鏡南道及黃海道의 方言』(1930)에서 이 지역 음운현상의 특질 가운데 글쓴이의 논의와 비슷한 음운변화 유형을 관찰하였다. “ ‘요’의 모음을 포함하는 어사, 예를 들면, ‘學校, 教師, 公子廟, 妙香山, 車票, 表面, 孝子’ 등에서 ‘교, 묘, 표, 효’ 등은 함경남도의 몇몇 지방에서는 대체로 ‘학괴, 괴사, 공자괴, 뫼행산, 차괴, 괴면, 회즈’와 같이 ‘외’로 바뀌지는 현상이 뚜렷하다. 그 반면, 여타의 다른 지방, 즉 갑산, 혜산, 풍산 지방에서는 ‘외’의 발음 이외에 ‘차포, 호자, 공자모’ 등과 같이 ‘오’로 발음하고 있다.”(pp.23-24).

ㄴ. 묘계(妙計) > 모계(심청, 상. 27ㄱ), 묘책(妙策) > 모책(조웅 1.3ㄴ).

위와 같은 단모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의 일종으로 역시 같은 시기의 방언자료에서 일정한 자음에 후행하는 단모음 ‘오’가 때로는 이중모음 ‘요’로 출현하기도 하였다. 방포일성(放砲一聲)→방표일성(조웅, 3.2ㄴ), 폭포(瀑布)→폭표(별춘.3ㄱ). 따라서 (32)ㄱ에서와 같은 ‘포수’에 대한 ‘표수’의 출현은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포→표’의 과도교정의 경향에 합류한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과도 교정형 ‘표수’(砲手)는 이번에는 이 시기에 생산적인 단모음화를 수용하여 ‘표>표’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 시기의 방언자료에 ‘표>표>표’와 같은 변화는 쉽게 찾을 수 있다.

- (34) ㄱ. 표련(飄然, 화룡 82ㄴ) ∞ 표련(화룡 58ㄴ),
ㄴ. 형주 유표는(화룡 56ㄴ) ∞ 형주 유표와(화룡 59ㄱ),
ㄷ. 표박(漂泊, 적성, 상. 22ㄱ) ∞ 표박(조웅 1.16ㄴ, 풍운, 13ㄱ),
ㄹ. 일엽 표주(瓢舟, 대봉, 상. 12ㄴ) ∞ 일엽 표주(충열, 하. 17ㄱ),
ㅁ. 표표정정(表表亭亭, 수절가, 상. 19ㄴ) ∞ 표표정정(적성, 상. 26ㄱ).

따라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 등장하고 있는 ‘표수 ∞ 표수 ∞ 표수’(砲手) 등과 같은 공시적 변이는 ‘표수(砲手)→(과도교정)표수>표수>표수’의 변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이의 모습은 현대 전북 방언 등지에서도 주로 토박이 노년층의 자연발화에 그대로 반복되어 실현되고 있다(최전승 2004: 100-104를 참조).⁶⁰⁾

- (35) ㄱ. 그 동네 정표수라는 표수가 하나 있어. 근디 표수라는 사람이. 참 표수질 근간이 허고 허서(전북 군산 옥구군 편, 나포면 설화 17:1029, 유복동 74세),
표수는 인자 저쪽으로 가고(군산 옥구군 편, 나포면 유아기(여))

60) 이 예문들은 『한국구비문학 대계』 가운데 전북 남원군 편(5-1, 1980), 군산시 옥구군 편(5-4, 1984), 그리고 정주시 정읍군 편(5-6, 1984)에서 각각 인용한 것이다.

71세),

- ㄴ. 그리고 ㅍ수는 거그서 ㅍ이 나가든지 ㅍ라... 그리서 ㅍ수를 ㅍ 돌라 시어 놓고는(전북 정읍 덕천면 설화 8: 797, 민대호 82세),
너그 ㅍ수(ㄱ)가 얼마나 있으문... ㅍ수가 얼마나 있냐 물은게... 짐승 잡는 ㅍ수(ㄴ)가 없간다?(정읍 덕천면 8: 796),
조께 ㅍ수(ㄴ)가 움서 이리 노루 못 봤냐고... 예, ㅍ수는 간 뒤에 나무를 이케 헤쳐준게 노리가 나오드만(정읍 태인면 17: 115, 손병준 85세).
- ㄷ. 사냥꾼, 응, 총 갖구 ㅍ수 말이지... 근디 그 ㅍ수는 어째서 왔냐며는(전북 남원 보절면 설화 2: 630), 그 ㅍ수가 ㅍ을 잡으러 갔단 말이여(남원 보절면 2: 631, 소주태 47세),
쪼매 ㅍ수(ㄴ)가 하나 오드라느만, ㅍ수가 하나 오더니(전북 군산시 옥구 대야면 설화 26: 738),

위와 같이 현대 남원과 정읍, 그리고 군산지역 등의 토박이 방언 화자들이 구사하는 자연스러운 구술 자료에 등장하는 ‘ㅍ수’(砲手)의 공시적 변이형 ‘ㅍ수 ∞ ㅍ수 ∞ ㅍ수’들은 글쓴이가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 확인하였던 유형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자료와 오늘날의 구어 방언자료 사이에는 한 세기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개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격의 변이가 그대로 화자들의 구어 가운데 공시적으로 지속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예문 (32)ㄴ에서 관찰하는 바와 같이, 완판 83장본 『화룡도』의 동일한 문면에서 표면상 수의적으로 교체되어 출현하는 ‘ㅍ수’와 ‘ㅍ수’의 변이 현상 역시 오늘날의 전북 정읍 덕천군 민대호(설화 채록 당시 82세) 노인 화자의 구술 가운데 지속되어 있다.⁶¹⁾

지금까지 살펴 본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의 ‘ㅍ수’의 토속적인 방언

61) ‘ㅍ수’(砲手)에서 과도교정을 거친 ‘ㅍ수’ 형태는 현대 지역방언에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해도 방언연구』(황대화, 2007, 한국문화사)에 부록으로 실린 <황해도 방언자료> 가운데 ‘ㅍ수 \rightarrow ㅍ수’(황남, p.429)가 등장한다. 또한, ‘ㅍ수’ 방언형은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의 방언에서도 조사 보고된 바 있다(김계근 2001:343).

형들의 실체가 현대 전북방언에서 추출된 (35)의 예들에 비추어 실제로 확인되고, 여기에 참여한 과도교정과 음성변화가 인정된다면, 글쓴이가 앞서 §5.2에서 제시한 유사한 성격의 ‘소쥬→(과도교정)효쥬>회쥬>회주’(燒酒)와 같은 통시적 과정도 아울러 보장될 수 있다.

6. 결론과 미해결의 문제들

지금까지 글쓴이는 19세기 후기 국어 지역방언 가운데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방언의 자료와, 통상적인 전라방언 자료를 이용하여 그 당시 공식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음성변화에 대한 화자들의 적극적인 사회언어학적 반응과 참여로 인하여 수행되고 있는 몇 가지 유형의 과도교정을 관찰하였다. 이와 같은 과도교정들은 해당 음성변화의 확산과 수용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밖으로 표현된 표준적 규범과, 이에 대립되는 정체성과 유대감을 나타내는 내면적인 권위 등에 근거한 화자들의 인식과 평가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최근에 이 글에서와 상이한 성격의 20세기 초반 함북 방언자료를 이용하여 주로 구개음화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과도교정을 깊이 있게 고찰한 소신애(2007)가 지적한 바와 같이, (ㄱ) 이러한 과도교정이 당대 토박이 방언 화자들의 기저형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문법 내적으로 체계화하는 문제, (ㄴ) 당시 진행 중인 음성변화와 해당 과도교정의 상관관계를 일관성 있게 규명하는 작업 등은 글쓴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나 소신애(2007)에서 시도된 과도교정의 원리, 즉 발화 해석 과정에서 청자들에 의해 수행된다고 하는 과도교정에 의한 재해석 또는 공식적인 발화 산출과 해석 등에 대해서 글쓴이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글쓴이가 설정한 주제와 대상의 제약으로 이러한 영역에까지 미칠 수가 없었다.

또한, 소신애(2007:187)는 음성변화, 특히 과도교정을 취급할 때 문헌 자료에 반영된 해당 표기가 당시의 실제 화자들의 발음 그대로를 반영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음과는 무관한 과도 표기형과 실제로 화자들에 의해서 수행된 과도교정을 식별하는 작업은 어렵다고 보았다. 현대와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과거의 일정한 문헌 자료에 나타난 표기와 그 당시 실제의 발음 간의 거리 또는 간극에 관한 문제는 역사언어학의 영원한 과제에 속한다. 그 이유는 모든 통시적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와 그 확산은 문헌 자료에 기록된 표기에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상적인 과도교정의 사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하나의 개인으로서 어느 과도교정이 토박이 화자들의 구어에 등장은 하였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개인어에서 일회성으로 출현하는 과도교정은 그 자체 언어 변화의 요건은 이루지 못한다.⁶²⁾

그러한 개인적인 과도교정이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서 반복하여 사용되고, 이어서 다른 화자들로 채택되어 확산되기 시작하였을 경우에 언어변화의 요건이 성립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대체로 문헌 자료의 표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구어에서 비롯된 음성변화나 과도교정이 문헌어로 등록되는 시점을 어떻게 포착하여야 될까.

예를 들면,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 ‘점심’(點心)에서 과도교정을 거친 ‘겸심’형이 다음과 같이 1회 출현한다. 모여간 마조 안저 겸심밥이 방장이라(수절가, 상. 117). 여기서 ‘겸심’형은 규범어를 지향하려는 사회언어학적 동기에서 출발한 과도교정이다. 이러한 과도교정을 나타내는 표기는 84장본 완관 『열여춘향수절가』와 동종의 다른 판본인 다가서포본에서는 ‘점심’으로 수정되었다.

62) 방언 화자의 개인어에서 과도교정이 일회성으로 출현하다가 사라지고, 표기 기록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을 것이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문증(文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술자의 언어를 충실하게 한글로 전사한 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과도교정(침→춤)으로 추정되는 개인적 차원의 예들이 등장하고 있다.

“어려서는 그 주사춤 놓러 다닌다고 땡겼거든. 이라고 있으면 주사춤 준다고 일본놈 같이 생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딱 춤 주어... 아가 어찌 그러나 허니께, 춤 주러 온께, 춤 주러 온께 하고 울더래. 주사춤이 굵게 무서운 양인가 그랬거든.”(『강강술래 앞소리꾼 최소심의 한평생』(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9, 1992, pp.20-21).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점심’형을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현대국어의 다른 지역방언에서 이와 동일한 과도 교정형이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와 동일한 동기에 의하여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다. 점심→점심(경원, 온성, 회령, 무산), 김태균, 『함북방언사전』 1986:434. 그리고 ‘점심’형은 그 형성 과정이 여타의 지역방언에서의 사회언어학적 배경과 같지는 않지만 서울말 중심의 중부방언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김계곤 2001:197). 그리하여 1930년대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3)에서 그 당시 사용되었던 ‘점심’과 ‘점심’ 변이형 가운데 ‘점심’형이 표준어로 선정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표준어의 규범에도 불구하고, 서울말의 격식체에서 이 형태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살아 있는 것이다. 형태허구 점심 잡수구(『서울토박이 부인 한상숙의 한평생』(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8, 1992, p.160).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면, 84장본 완판 『열여춘향슈절가』에서 단 1회 출연하는 ‘점심’형의 실체는 단순한 표기상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과도교정이 표기에만 출현하고 그 당시의 화자들의 구어에 존재하지 않은 사례를 설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가 §3에서 관찰한 『독립신문』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방언에서의 과도 교정의 유형(움라우트와 전설모음화 및 ㄱ-구개음화에 대한 반작용)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들 가운데에서도 물론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움라우트에 대한 과도교정, 그리고 특히 보조용언에서 ‘-고 싶다→고 습다’ 등은 당시 화자들의 구어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19세기 후기를 살았던 당시의 화자들이 동 시대의 상대방 청자들에게 자신의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구어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표기 수단으로 존재하는 그 당시의 혁신적인 신문의 표기도 역시 같은 시대의 독자층들에게 읽힐 것을 전제로 한 의사전달의 매체인 것이다. 따라서 화자들의 실제 구어에 사회언어학적 동기에 의해서 과도교정이 출현하였다면, 이와 동일한 동기에 의해서 독자들을 향한 문헌어에서도 과도교정이 일어

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문헌 자료 중심의 중세영어의 방언학을 연구하는 일군의 학자들, 특히 MckIntosh 등(Laing 1989)은 표기 문자에 의한 문헌어는 그 자체 독자적인 언어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최근의 역사 사회언어학 분야에서는 문헌 자료에서 표기에 의해서 대변되는 문헌어는 적어도 해당 시기의 화자들의 사용하는 여러 말의 스타일 가운데 격식어의 수준에 해당된다는 전제를 설정한다(Berg 2005).

그렇기 때문에 『독립신문』의 자료에 나타난 과도교정들은, 그 당시 화자들의 구어성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 하나의 고유한 언어 현상으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계곤(2001), 『경기도사투리 연구』, 박이정.
- 김이협(1981), 『평북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주원(1997), “구개음화와 과도교정”, 『국어학』제29집, 33-49. 국어학회.
- _____ (2000), “국어의 방언분화와 발달-국어 방언 음운사 서술을 위한 기초적 연구-”, 『한국 문화사상 대계』제1권, 151-18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주필(1994), “17 · 8세기 국어의 구개음화와 관련 음운현상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문학 박사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 남광우(1997), 『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 백두현(1991), “20세기 초의 서울방언에 대한 일 고찰”, 『용언어문논집』제5집.
- _____ (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국어학 총서 19, 국어학회.
- 소신애(2007), “언어변화 기제로서의 과도교정, -20세기 초 함북 방언을 중심으로-, 183-207, 『어문연구』 제35권 제1호.
- 신중진(2004), “『독립신문』에 나타난 몇 가지 어학적 특징”, 5-29. 『개신어문 연구』, 제26집, 충북대학교.
- 유창돈(1971), 『어휘사 연구』, 선명문화사.
- 오종갑(1994),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모음 운운현상과 제약”, 1-48, 『인문 연구』제16집 1호, 영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유탉일(1983), 『완관 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 _____ (1990), “완관 방각소설 형성 배경”, 127-152, 『한국문헌학 연구』, 아세아문화사.
- 이기갑 외(편, 1997), 『전남방언사전』, 전라남도, 태학사.
- 이기문(1972), 개정판 『국어사 개설』, 탐출판사.
- _____ (1980), “19세기 말엽의 국어에 대하여”, 『남광우박사 화갑기념논총』, 255-266, 일조각.
- 이병근(1970), “19세기 후기 국어의 모음체계”, 『학술원논문집』제9집, 375-390, 학술원.
- _____ (1992), “한상숙 노인의 서울말”, 『밥해 먹으면 바느질허라, 바느질아

- 니른 빨래허랴』(뿌리깊은 나무 민중자서전 18. 서울 토박이 부인 한상숙의 한평생), pp.15-18. 뿌리깊은나무사.
- 이승녕(1971), “한국방언사”, 『한국문화사대계』9(언어·문학), 고려대학교.
- 이현희(1993),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제15집.
- 이태영(2000), “완판(전주판) 방각본 고소설의 서지와 언어”,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역락.
- _____(2004), “완판본 『심청가』해제와 영인”, 『국어사연구』제4호.
- _____(2007), “새로 소개하는 완판본 한글고소설과 책판”, 『국어문학』43집, 29-54. 국어문학회.
- 전광현(1983), “『蘊菴書錄』과 정읍 지역어”, 『국문학 논집』11(단국대학교).
- 주갑동(2005), 『진라도 방언사전』, 수필과비평사.
- 최동주(1995), “국어 사상 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 문학박사.
- 최전승(1983), “비어두음절 모음의 방언적 분화(u_{oo}i)와 접미사 -i의 기능”, 『국어학연구』, (정병욱 선생 화갑기념논총), 154-175, 신구문화사.
- _____(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 _____(1987), “언어변화와 과도교정(hypercorrection)의 기능,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를 중심으로--”, 340-359, 『국어학 신연구 II』(김민수교수 화갑기념), 탑출판사.
- _____(2004),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역락.
- _____(예정), “19세기 후기 지역방언의 음성변화의 방향과 방언자료 표기에 반영된 성문 마찰음 ‘ㅎ’의 실체성과 상징성”, pp.1-25, 원고.
- 최학근(1990), 『증보.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 허 옹(1985),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 _____(1987), 『국어 때때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 현평효(1962), 『제주도 방언연구』, 태학사.
- 홍윤표(1993), 『국어사 문헌자료 연구』(근대편 I), 태학사.
- _____(2007), “한글의 역사와 완판본 한글 고소설의 문헌적 가치”, 5-27, 『국어문학』, 국어문학회.
- 小倉進平(1944), 『朝鮮語 方言의 研究』, 岩波書店.
- Bergs, Alexander.(2005), Social Networks and Historical Sociolinguistics,

- Mouton de Gruyter.
- Baugh, John.(1992), Hypercorrection: Mistakes in Production of Vernacular African American English as a Second Dialect, *Language and Communication*, 12(3/4):317-326.
- Campbell, Lyle.(2000), *Historical Linguistics*, An Introduction, The MIT Press.
- Dowens W.(1998), *Language and Society*,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ck, H. H.(1991),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Second Edition, Mouton de Gruyter.
- _____.(2003), “Analogical Change”, in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ed. by Joseph R. & R. D. Janda, pp.441-60. Blackwell Publisher.
- Hock, H. H. & Brian D. Joseph.(1996), *Language History, Language Change, and Language Relationship*,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Mouton De Gruyter.
- King, J.R.P.(1991), “Russian Sources on Korean Dialects”, Unpublished Harvard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Labov, William.(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Basil Blackwell.
- _____.(1994).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Internal Factors*, Blackwell Press.
- Lass, Roger.(1997). *Historical Linguistics and Language Change*, Cambridge Studies in Linguistics 8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ing, Margaret.(edited, 1989), *Middle English Dialectology*, Essays on some principles and problems, The University Press Aberden.
- Milroy, James.(1992), *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 Blackwell Press.
- Ohara, John, J.(1989), “Sound change is drawn from a pool of Synchronic variation”, *Language Change: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its Causes*, pp.173-98. ed. Guenter K. & M. D. Morrissey, Moton de Gruyter

- _____.(1993), “The Phonetics of Sound Change”, in *Historical Linguistics*, ed by Charles Jones. 237-278, Longman.
- _____.(2003), “Phonetics and Historical Phonology” in in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ed. by Joseph R. & R. D. Janda, pp.669-686. Blackwell Publisher.
- Paul, Hermann.(1886/1960),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Max Niemeyer Verlag.
- Smith, Jeremy, J.(2007), *Sound Change and the History of English*, Oxford University Press.
- Swann, Joan et als(2004), *A Dictionary of Sociolinguistics*, The Univ. of Alabama Press.

The Functions of Hypercorrection and Sound changes in progress of the Late 19th century Regional Dialects of Korean

Choe, Jeon-Seung

It is now well established fact that in order to gain greater insights into the dynamic nature of the synchronic structure and system of Modern Korean as well as its regional dialects, it is one of the prerequisites to study and understand in earnest many kinds of linguistic changes in progress of the late 19th century Korean, which represents the last historic period of Recent Korean. With the advent of late 19th century i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we could at last approach via much linguistic materials published at those time in many parts of Korean peninsular the real events of the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regional dialects of Recent Korean.

Through many linguistic studies accomplished so far on that historical period, now we understand that the linguistic states of regional dialects at the time of late 19th century in many parts of

Korean peninsular were characterized by continuing variations of many types resulting from increasing changes and much modifications of Recent Korean.

With this premise born in mind, I have observed two kinds of hypercorrection, which occurred at that period in independent linguistic materials respectively. The one was the standard norm oriented overt hypercorrections appeared in the corpus of tonglipsismun(1894. 4. 7.-1898. 5. 30.), which was the first private news paper published in Korea written with pure contemporary Central dialect including that of Seoul. The other was the covert norm oriented hyperdialectalism appeared in the traditional dialect materials comprising of old commercial novels published mainly in the district of Cheon-ju area as well as the old manuscripts of pansori edited and modified by Shin jae-hyo, who was born in Kochang in the year of 1812.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showed a significant number of instances of hypercorrect linguistic behaviours, not so far reported on. In this paper I'd like to suggest that these types of hyper-correction offer important insights into the nature of the sociolinguistic system which operated in the real contemporary speech communities of late 19th century.

Key Words : Hypercorrection, the late 19th century Korean, South-western dialect, overt prestige, covert norm, Recent Korean,

이 논문은 2008년 12월 4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1월 23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